

## WCU 과제 신청 둘러싸고 '논란'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

### 학교측 - 교수 역량 부족 원인 ... 교수 - 연구여건 열악 '공방'

교육과학기술부의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World Class University, 이하 WCU) 사업'에 우리 대학이 신청한 사업 개수가 한 개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경쟁 대학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WCU 사업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연구 역량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이번 WCU 사업에 서울대는 51개, 연세대 36개, 성균관대 23개, 경북대 18개로 우리가 신청한 사업 개수보다 훨씬 많다. 또 경희대와 건국대도 각각 24개, 14개로 각 대학들의 사업유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다.

WCU 사업의 신청 유형에는 △1 유형=새로운 전공 학과 신설 지원 △2유형=국내교수와 해외학자와 공동 연구 지원 △3유형=세계적 석학 초빙 유형이 있다. 그 중 1 유형은 자격 심사가 까다롭고 지원 금액도 크다. 우리 대학이 사업을 신청한 유형도 제 1유형이다.

현재 우리대학이 신청한 신설 학과는 물리, 반도체, 전자학과를 합한 양자공학과다.

1유형의 평가 지표에는 △최근 5년간 상위 10%저널에 게재된 논문 수 △논문 1건당 피인용 횟수 △연구팀 피인용 총 횟수 △연구비 수주 실적 △국내 및 국외 특허 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우리 대학은 아직 이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교수가 매우 부족하다. 실제로 이 평가 지표를 충족하는 교수는 양자공학과 신설과제에 참여한 물리학과 강태원 교수 단 한 명 뿐이다.

전략예산팀의 신기훈 팀장은 "사업 신청을 위해 평가 지표를 충족하는 교수님들을 찾아보았으나 이를 충족하는 교수님은 한 손에 꼽을 정도였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2유형과 3유형은 국내 연구진과 해외 대학의 석학들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분야로 기존에 국제 협력 연구가 활발했던 대학들에게

유리한 유형이다. 전략예산팀이 사업신청을 권했던 A교수는 "개인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 뿐더러 주변의 해외 석학 중에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무르며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은 없었다"며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이유를 밝혔다. WCU 사업신청과제는 10월초 1차 전공패널심사(60%), 11월 중순 2차 해외 동료평가(International Peer review, 30%)와 3차 종합패널심사(10%) 등 총 3단계의 심사 평가 과정을 거쳐 11월말 최종 선정된다. 이영호 기자 blueeagle@dongguk.edu



'후끈' 목격가요제 예선 현장 목격가요제 2차예선이 50팀이 참가하는 가운데 학림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 날 본선에 올라간 12팀은 다음달 2일 목격가요제에서 한층 더 열띤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사진은 예선에 참가한 한 참가팀의 모습. 김윤수 기자 ysher21@dongguk.edu

## 동국인 가을축제 '목격대제전' 개막

영상제 · 동연제 · 목격가요제 30일부터 3일간

동국의 가을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목격대제전'이 내일(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축제의 막을 올린다.

목격대제전의 첫 행사인 동국 영상 Festival은 DUBS의 주최로 내일 6시부터 만해광장에서 열린다. 이날 영상제에서는 교육방송국(DUBS), 영상대학원(영화영상학과, 멀티미디어학과), 동아리 디딤돌 등이 제작한 영상을 발표한다. 김지연(신방2) DUBS 학생방송장은 "영상과 관련 없는 학과들도 자신의 과를 소개하는 UCC를 발표해 재미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MC스나이가퍼가 초청가수로 나와 영상제를 빛낸다. 같은 날 홍보대사 '동감'은 3기 임명식과 함께 동국 O.X퀴즈대회를 열어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O.X 퀴즈대회는 디지털카메라, MP3 등의 상품이 준비되었으며 오후2시 만해광장에서 열린다.

다음달 1일 열리는 동아리연합 축제는 만화열과 동국문화회에서 주관 전시행사를 연다. 또한 팔정도 앞에서는 각 분과에서 준비한

네일아트 · 커피게임 · 노래자랑 등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이 열린다. 또한 6시부터 만해광장에서 열리는 야간 행사에는 AJAX, 통계구름, 아리랑 등 공연 동아리들의 다채로운 공연을 펼친다. 또한 리쌍 등 초대가수 공연도 이어진다.

목격대제전의 하이라이트인 목격가요제는 다음달 2일 6시부터 만해광장에서 열린다. 이날 본선에서는 치열했던 1·2차 예선을 통과한 12개의 팀들이 각자의 노래 신의 과를 소개하는 UCC를 발표해 재미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MC스나이가퍼가 초청가수로 나와 영상제를 빛낸다. 같은 날 홍보대사 '동감'은 3기 임명식과 함께 동국 O.X퀴즈대회를 열어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O.X 퀴즈대회는 디지털카메라, MP3 등의 상품이 준비되었으며 오후2시 만해광장에서 열린다.

다음달 1일 열리는 동아리연합 축제는 만화열과 동국문화회에서 주관 전시행사를 연다. 또한 팔정도 앞에서는 각 분과에서 준비한

**본사사령**

- ◇ 임수습기자
  - ▲ 한은지 (생명자원과학대 1)
- ◇ 면기자
  - ▲ 윤혜경 (공과대 기계공 2)
  - 이상 9월 29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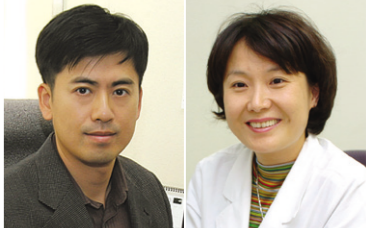
## 공인 회계사 27명 합격 전국 11위 ... 작년 대비 2배

올해 우리 대학 공인 회계사(일명 CPA) 합격자 수가 27명으로 작년 15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 43회 공인회계사 최종합격자 결과에 따르면 우리대학은 27명이 합격해 서울 시립대, 이화여대에 이어 전국 11위의 합격자 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쾌거는 이번에도 새롭게 도입된 부분합격제도가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부분합격제도는 1차 시험의 합격자가 같은 해 실시된 2차 시험의 과목 중 대 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에 다음 해 2차 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대학은 작년 1차 시험에서 전국 10위를 기록해 부분합격제도 수혜자가 31명으로 비교적 많이 높은 합격자수를 기록할 수 있었다.

공인회계사 시험준비반(CPA) 조교인 전철호 씨는 "이번 합격자들 중 13명이 우리나라 최대 회계 법인 삼일애에 취직했고 삼정, 안건 등 메이저 회계 법인에도 각각 8명, 2명씩 취직했다"며 공인회계사 분야에서 달라진 우리대학의 위상을 설명했다.

## 강삼모, 임윤정 교수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



▲ 강삼모 교수 ▲ 임윤정 교수

강삼모(경제학)교수와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임윤정(의학)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후의 2009년도 판에 등재된다.

강 교수는 환율이 몰가 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실질환율 고평가 분석법 등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한 업적을 높이 평가 받아 사전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임 교수는 2008 아시아 · 태평양 소화가학회에서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했으며, 임 교수는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35편의 논문을 발표한 업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마르퀴즈 후즈후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세계인명사전으로, 정치 · 경제 ·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매년 5만여 명을 선정해 프로필과 업적을 등재한다.

## 말 많고 탈 많은 학생회 감사 마무리

철저한 회계관리 필요 ... 학생들 무관심도 문제

총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총대비대위)가 실시한 2008년 상반기 통상 감사가 10일간의 감사결과 공시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대부분의 단위가 주, 경고 조치에서부터 예산정지까지 징계를 받은 가운데, 각 단위들은 3년 만에 열린 감사를 통해 불투명한 예산운영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와같은 감사결과에도 대다수의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단과대의 감사결과를 모르는 등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 각 단위들은 무리한 사업계획과 비효율적 예산관리, 불성실한 피감사태도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문과대 · 법대 등 몇몇 단과대의 경우 사업기획서와 평가서 내용이 부실했고, 경영대, 동아리연합회 등은 예산집행을 위반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다수의 단위들이 감사 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누락하거나 지각제출을 한 것도 문제였다. 이는 오랜만에 감사가 진행되다보니 각 단위들이 자료 관리 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탓이다.

또한 감사시행세칙 제 14조에 의하면 감사특위가 요구하는 피감사주체인 학생회장과 집행부는 면담감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그러나 문과대, 생과대 등 몇몇 단위는 학생회장이 지각하거나 불참했다. 또한 총학생회 비대위원회, 이과대, 경영대 등은 학생회비와 학생회장의 사비 사용을 구분하지 못해 예산 사용에서 불투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대비대위 또한 다소 미숙한 진행을 드러냈다. 감사를 진행했던 이혜원 전 총대비대위원장장은 "대의원장들의 개인 스케줄을 맞추다 보니 회의가 다소 지체됐다"고 말했다. 현재 총대비대위원장은 이혜원 전 총대비대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며, 대의원장직이 공석인 공과대, 의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에 학생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하정환(영문2) 군은 "학생회비는 학생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쓰여야 한다"며 방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누락하거나 지각제출을 한 것도 문제였다. 이는 오랜만에 감사가 진행되다보니 각 단위들이 자료 관리 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탓이다.

또한 감사시행세칙 제 14조에 의하면 감사특위가 요구하는 피감사주체인 학생회장과 집행부는 면담감사에 반드시

wonder@dongguk.edu

## 지/면/안/내

2 취업대비 프로그램 풍성한 10월

3 달라지는 중앙도서관

4 에코캠퍼스 기획연재 - 2

5 한 · 중 지적재산권 학술세미나

8 미리 가 본 미담문학제

## 제46회 동대학술상 작품 모집

동대신문사에서는 학생들의 우수한 연구업적을 시상하여 학업부진을 조성하고자 제46회 동대학술상 작품을 모집합니다. 동국의 미래를 열어갈 우수하고 패기에 찬 학생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모집분야 및 분량**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3개 분야 모두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시상** 각 분야별 장원 1명 100만원, 가작 1명 50만원

## 제23회 동대문학상 작품 모집

동대신문사에서는 우수한 문학과 발굴을 통하여 빛나는 동국 문학 전통을 계승하고 제 23회 동대문학상 작품을 모집합니다. 동국문학의 미래를 열어갈 참신하고 패기에 찬 학생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모집분야 및 분량** · 시: 3편 내외  
· 소설: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 희곡 · 시나리오: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시상** 각 분야별 장원 1명 100만원, 가작 1명 50만원  
(시: 장원 1명 50만원, 가작 1명 30만원)

**응모자격** 우리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경주캠퍼스 포함, 대학원생 제외)

**모집기간** 2008년 10월 20(월) ~ 11월 14(금)까지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당일 도착분까지만)
- 반드시 학교 공식시청이나 본사 홈페이지에서 결표지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작품과 함께 제출
- 여러 작품을 제출할 경우 결표지는 한 장만 작성
- 작품엔 이름 등 신상명세 기재 금지
- 작품은 원고지가 아닌 A4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반문서 양식으로 작성
- 총 3부씩 제출

**보낼곳**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동대학술상 · 문학상 담당자

**문의처** 전화 (02)2260-3495 전자우편 dgupress@dongguk.edu

홈페이지 http://www.dgupress.com/ 독자마당

**심사결과발표** 2008년 12월 1일자 동대신문 자상(예정)

**기타**

-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모작품은 미발표되거나 현상응모된 바 없는 순수 창작품이어야 합니다.
- 당선자에게는 개별통보합니다.
- 당선자에 대한 저작권은 발표일로부터 5년간 본사가 보유하고 그 이후는 작가에게 귀속됩니다.
-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본사의 규정과 결정에 따릅니다.

## 동대신문사

SECOND\*ANNUAL  
**DONGGUK FILMFESTIVAL**  
SEPTEMBER 30TH  
PM 06:30  
동국대학교 만해광장

교육방송국(DUBS)  
영상대학원-영화영상학과  
-멀티미디어학과  
디딤돌

동국 과 UOC 콘테스트!  
동영페 티켓 속 행운을 찾아라!  
싸이월드 도토리 잡고 영화예매권까지!  
동영페 보고 DUBS로 먹고!  
DUBSCAST.COM 에서 확인하세요!

주최: 동국미디어센터 교육방송국  
후원: 동국대학교 학생자치팀  
초대손님: MC스나이가퍼, 엘프리

00700  
휴대폰 국제문자  
대박내일

# 취업대비 프로그램 풍형 10월

## 채용설명회 · 특강 줄이어 ... 상시 취업 상담부스도 개설

취업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 대학에 기업들의 채용 설명회와 취업 대비 프로그램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대학에서 10월에 채용설명회를 여는 기업들은 △기아자동차(1일) △코리안리츠재보험(1일) △현대해상화재보험(6일) △롯데그룹(8일) △델코웨어(21일) 등이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대규모 채용에 발맞추어 우리 대학의 취업지원센터(센터장=손재영)에서는 현재 취업 대비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입사서류작성과 면접능력향상을 위한 특강 및 클리닉들이 현재 진행 중이다.

다음달 6일부터 열리는△이미지

메이킹 실습 △면접 스킵 실습 △2차 입사서류 클리닉은 지난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선착순으로 취업지원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또 학생회관 1층에 기업 인사 상담자가 상담을 해주는 취업 상담 부스도 만들어졌다. 각 부스에선 기업에서 나온 인사 관련자가 학생들을 위해 대기하며 1:1 상담을 한다.

이와 더불어 업종·직종별 전문가 릴레이 특강으로 '유통업 취업 준비하기'를 주제로 롯데마트 인사팀의 박세우 씨가 특강을 한다.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선착순으로 사전접수를 받으며, 해당 100명의 인원을 받는다. 이 릴레이 특강은

11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 5시 30분부터 8시까지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영호 기자 blueeagle@dongguk.edu

**인문주간행사 다음달 6일 개최**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주최하고 우리학교 문과대학 및 교양교육원이 주관하는 '2008년 인문주간' 행사가 다음달 6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된다.

'열림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아래 '일상으로서의 인문학'을 주제로 선정해 강연과 토론, 문화체험과 답사, 서울도심 기행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학생회관 1층에 상시 취업상담부스가 마련됐다. 취업시즌을 맞아 기업들이 홍보와 더불어 상담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현재 입주한 업체는 현대 자동차다. 사진은 인사담당자와 상담하는 학생. 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 회전무대

**홈페이지 북블록**

○...나만 아니면 된다는 북블록, 우리대학에서도 열리고 있는데

홈페이지 로그인은 구학번 아이디, Udrims 로그인은 신학번 아이디

어떤 아이디로 로그인해야할지 모르는 스티븐잡정 게임 키보드 앞에서 펼쳐지는 '1홈피 2아이디(?)'

**양심 숭바꼭질**

○...여기는 중앙도서관 숭바꼭질 현장.

꼭꼭 숨겨라, 책 제목 보일라 꼭꼭 숨겼다. 나만 보려고 나만 아는 칸에 쫓는다

꼭꼭 숨었다. 책 읽고 귀찮으면 아무 칸에 쫓는다

꼭꼭 숨어라. 책 숨겨놓은 사람 머리 카락 보일라 꼭꼭 숨겼다? 다른 사람들 위한 배려심

### 세제 '개'편

○...옛말에 가재는 개편이라했던가...

지난 1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과 최근 논란이 되는 증부세 완화도 두고두고 국민에게 회자될 한마디를 남겼다.

'세제는 개(부자)편이래...'

### 유린된 생명

○...어른의 이기심이 어린생명을 유린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무슨말이고 하니, 우유 속 단백질 농도를 높이기 위해 빨라진 성분을 넣은 분유가 중국 어린이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당신 아이에게도 먹일 수 있겠습니까"

### 박현숙 직원 중구청 표창 지역사회 복지 증진 기여

참사람봉사단 박현숙 직원이 서울특별시 중구청에서 주관하는 '제9회 사회복지의 날' 사회 복지 분야 표창을 받았다. 박현숙 직원은 우리대학 교직원들의 후원금을 모아 중구 무의막 노인 및 저소득 가정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한편, 중구 멘토링 봉사활동을 비롯한 중구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한 공적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금주의 동국인**

CPA(공인회계사)합격자 김태무(회계4) 군을 만나다

**"나의 합격전략은 체력과 엄격한 자기 관리"**

격한 그는 이미 메이저 회계법인인 인삼 회계 법인과 입사계약을 마쳤다.

CPA합격 노하우에 대해 "회계학은 공부할 양이 많은데 만약 마지막 한두 달을 잘못 보내게 되면 공부한 양의 3분의 2가 날아가 버려요. 마지막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당락이 달라지죠"라고 말했다. CPA에 합격하기 위해선 자기 관리와 끈기뿐만 아니라 체력도 필수적이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면서 축구를 즐겼다는 김태무 군, 축구 동아리 TOTO에서 활동하기도 했던 김태무 군은

"체력만큼은 자신 있었어요"라며 체력을 합격의 으뜸 조건으로 꼽았다.

여자친구가 있느냐는 질문에 김군은 "아직은 없어요. 합격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죠. 좋은 인연이 있다면 언젠가 자연스레 생기겠죠"라고 덧붙이는 웃음을 지었다.

김태무 군은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회계사들은 다른 분야에도 많이 진출하기도 하고 이직도 잦은 편인데, 그것보다 전 회계 법원에서 실력을 길러 회사를 대표하는 임원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blueeagle@dongguk.edu

**동악로에서 진정한 농활을 찾아서**

정웅재 기자 wonder@dongguk.edu

최근 인기 오락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의 순수한 매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 오락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은 직접 농촌 현장에 들어가 농사 활동을 체험한다. 요즘 대학생들의 농촌봉사활동(이하 농활)은 이 오락프로그램처럼 단순한 '농촌 MT'로 취급받는다.

예전의 농활은 지금의 농활과 성격이 다르다. 1960년대 이후 학생운동권 사이에 농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향토개혁단 및 농촌 연구 학회들을 중심으로 농촌활동이 시작됐다. 80년대에는 학생운동의 기반 확대에 따라 과 단위의 농활이 대중화됐다. 예전의 농활은 학생회에서 주도적으로 농활을 조직해, 대학생으로 하여금 자기반성과 사회에 대한 비전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줬다. 하지만 요즘 농활은 농민에게 일손돕기 정도로 변한 지 오래다. 이러한 현실은 농활을 기획하는 학생회에서 기존의 농활 취지를 되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원래 취지가 퇴색해버린 농활이지만, 이마저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대학에서 정기적으로 농활을 하는 단과대는 사과대와 사범대 등 소수에 불과하다. 사범대 김정

태(국교4) 학생회장은 "농활참여를 늘리려면 각 단과대 학생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야 하지만, 학생회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활을 '농촌 MT'라고 생각하거나 농사일이 고될 것이라 생각해 농활을 꺼리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는 직접 체험해보지 못해서 그렇다. 지난 학기 농활을 체험한 박아름(전기공1) 양은 "농사일을 거들면서 우리 농산품의 소중함을 느꼈고, 마을 주민들과 어울리며 농활이 보람차다고 느꼈다"고 한다. 또한 "FTA, 쇠고기 협상 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농민들의 삶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농활은 대학생들에게 틀에 박힌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드넓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기회다. 또한 앞으로 농활은 단순히 유희만 즐기는 친목도모의 MT문화에서 벗어나, 지성인으로의 농활 취지를 되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전처럼 대학생의 중요한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학생 개개인의 인식전환과 단과대 학생회 차원의 개선택이 필요하다.

**후배사랑 · 제자사랑 장학금 1천5백만원 전달**

컴공 동창회 · 박관호 교수 제자사랑 장학금 수여

컴퓨터공학과 동창회 장학증서 수여식이 지난 25일 학림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컴퓨터공학과 동창회 회장(회장=김승찬 · 76졸)은 이번 학기 장학생으로 선정된 손지인(컴공4), 김은지(컴공3), 석인성(컴공2)에게 각각 150만원씩 총 45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컴퓨터공학과 동창 장학회는 우리학교 개교 100주년과 컴퓨터공학과 창립 35주년을 기념해 2005년 설립됐으며 그동안 총 19명에게 총 2,8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한편, 2008학년도 2학기 '박관호 교수 제자사랑 장학' 수여식이 지난 23일 명진관 308호에서 진행됐다. 이번 수여식은 이번 학기로 8회째 열렸으며, 이 장학은 박관호(화학) 명예교수가 우리학교 기초과학분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정된 학생은 △송운애(수학과 석사과정) △김도형(물리학과 박사과정) △권병진(화학과 석사과정) △박준오(생물학과 박사과정)로 총 4명이며, 각각 25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받았다.

이 장학은 매 학기 화학과, 물리학과, 수학과, 생물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적 또는 연구업적이 우수한 학생 중 박관호 교수 연구장학기금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장학금을 수여한다.

제5회 청암 신진화학자상 시상식이 지난 23일 오후 4시에 명진관 308호에서 열렸다.

청암 시상식은 2년에 한번 개최되며 후학 사상에 대한 교육정신을 기리기 위해 박관호 명예교수의 유족과 화학과 총동창회 회원 및 교수들이 기금을 마련해 운영되고 있다.

올해 수상자로는 김상욱 박사(화학과 97졸)가 선정됐으며 부상 200만원을 수여 받았다.

김상욱 박사는 우리학교 대학원 화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공업환경연구부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중앙도서관(관장=석원경 · 화학)은 2008년 1학기 동안 가장 다독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글벗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에 선정된 학생은 김기혁(역교3) △유희태(경영1) △김재욱(컴공4) △이학선(대학원 경제학과 3학기)이다.

△인문 △사회 △자연 계열별로 각각 수상자를 선정했고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선정된 학생 중 가장 많은 400여권의 책을 읽은 이학선 양은 "단순히 책 읽는 것 자체가 좋았다. 나에게 있어 독서란 남자친구와도 같은 존재"라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성공 취업을 위한 2008년 4차

**'면접스킬 마스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안내**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2008년 4차 「면접스킬 마스터 프로그램」 시행을 안내하오니 취업준비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목적**

- 유형별, 단계별 면접훈련을 통해 다양한 면접과정의 이해
- 면접 시뮬레이션과 Role Play를 통해 면접스킬 강화와 자신감 획득
- 유형별 면접실습을 통한 본인의 능력파악과 효과적인 면접 전략 수립

**2. 교육내용**

가. 교육형태 : 1일(8시간) 면접스킬 집중교육  
나. 교육일정 및 선발인원

| 구분       | 차수 | 일시                            | 인원  | 비고 |
|----------|----|-------------------------------|-----|----|
| 2008-2학기 | 4차 | 2008. 10. 11(토) 09:00 ~ 18:00 | 50명 |    |

다. 교육장소 : 명진관 A103 라. 프로그램 및 강사

| 시간          | 프로그램                       | 내용   | 진행 및 강사 |
|-------------|----------------------------|--|---------|
| 08:40~09:00 | 등록                         | 출석체크 및 교재 배부                               | 취업지원센터  |
| 09:00~10:00 | 면접 특강                      | 면접의 이해 및 면접대비 인터뷰스킬                        | 전문강사    |
| 10:00~12:00 | 유형별 면접실습 I (면접 Role Play)  | 면접 시뮬레이션(실습 + 코칭)<br>- 면접 Role Play 및 면접훈련 |         |
| 12:00~13:00 | 점심                         | 산복입식당                                      |         |
| 13:00~15:00 | 유형별 면접실습 II (면접 Role play) | 면접 시뮬레이션(실습 + 코칭)<br>- 면접 Role Play 및 면접훈련 | 인사 담당   |
| 15:00~18:00 | 인사담당 실전 모의면접               | - 실전면접 + 피드백<br>- 집단, 토론, 영어, 프리젠테이션 면접    |         |
| 18:00~18:20 | 설문조사                       | 프로그램 및 강사에 대한 설문조사                         |         |

**3. 모집대상 및 모집기간**

가. 모집대상 : 3, 4학년 및 기졸업자  
나. 모집기간 : 2008. 10. 1(수)~10. 7(화)  
※ 선발인원(50명)의 2배수(100명)까지 선착순 접수

**4. 신청장소** : 취업지원센터(본관 2층)

**5.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별첨 소정양식)  
※ 신청(접수)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선발방법** : 접수순서로 선발예정

**7. 선발일자** : 2008. 10. 7(화)이전에 홈페이지 게재

**8. 기타사항** : 교육비 전액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센터(☎2260-3055)로 문의바랍니다.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

**2008문화상품 기획 · 창작공모전**

통합인문학특성화사업단은 '수도권대학 특성화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통합인문학 기반의 차세대 문화인재 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문화 기획 · 창작 능력 증진 및 관련 분야로의 사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8 문화상품 기획 · 창작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및 신청단위**

- 신청자격 : 2008학년도 2학기 문과대학 및 문화 분야 연계전공(문화학, 문화공학, 문화기획) 이수 재학생
- 신청단위 : 개인 또는 단체(2~5명)

**■ 신청 및 접수기간** : 2008. 10. 20(월) ~ 10. 31(금)

**■ 공모 부문 및 주제**

- 문화상품 기획
  - 철학, 역사, 문학 등 인문학과 전통문화를 대중화시키는 지식, 교육, 문화 콘텐츠 기획
  - 지역적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기획
  - 공연 · 전시 · 축제 등 각종 문화이벤트 기획
  - 현존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고객으로 하는 조지 브랜드 기획
  - 현재 유행 중이거나 유행 예정인 상품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상품 디자인 기획
  - 기타 문화상품으로 제작하여 출시할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콘텐츠 기획
- 디지털 문화콘텐츠 창작
  - 디지털 시화(詩畫) : 詩, 배경(동영상/애니메이션), 음악을 결합한 플래시 콘텐츠
  - 동영상 : 문화적 소재로 제작한 뉴스, 다큐멘터리, 드라마, 광고 등
  - 웹 콘텐츠 : 문화적 소재로 제작한 웹 콘텐츠(웹페이지 및 웹툰)
  - 플래시 애니메이션 : 문화적 소재로 제작한 플래시 애니메이션
  - 기타 문화적 소재를 활용한 디지털 창작물

**■ 제출 기준 및 형태**

- 문화상품 기획 : A4 규격을 중심으로 참가팀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되, 기획의도, 기획내용, 기대효과 등을 상세하게 작성한 '문화상품기획서' 제출
- 문화콘텐츠 창작

| 분야        | 시간(분량)  | 제출파일        | 제출형태                            |
|-----------|---------|-------------|---------------------------------|
| 디지털 시화    | 5분 미만   | mov, avi 파일 | CD로 제출<br>화면해상도 : 640×480 pixel |
| 동영상       | 10분 미만  | mov, avi 파일 |                                 |
| 웹 콘텐츠     | 4페이지 이상 |             |                                 |
| 플래시 애니메이션 | 5분 미만   | swf, exe 파일 |                                 |
| 기타        | 5분 미만   |             |                                 |

**■ 심사항목 및 배점**

- 독창성 및 창의성 30%

**■ 수상작 발표** : 2008.11.10(월)까지 (본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본 공모전 금상수상자에게는 『2008 동국대학교 해외문화 체험교육』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함.

**■ 시상내용**

| 수상명 | 선발인원 | 문화상품기획 | 문화콘텐츠창작 | 계  | 시상내용             |
|-----|------|--------|---------|----|------------------|
| 금상  | 1    | 1      | 1       | 2  | 각 장학금 200만원 및 상장 |
| 은상  | 2    | 2      | 2       | 4  | 각 장학금 100만원 및 상장 |
| 동상  | 4    | 4      | 4       | 8  | 각 장학금 50만원 및 상장  |
| 장려상 | 6    | 6      | 6       | 12 | 각 장학금 30만원 및 상장  |

**■ 유의사항**

- 미 발표작으로 관련 기관 또는 행사에 출품하지 않은 작품이어야 함.
- 중복 지원할 수 없음.
- 수상작품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은 본 사업단에 귀속됨.
- 타인저작권 침해 작품, 제작사실이 허위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임상 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입상을 취소함
- 출품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제출물(신청서 접수시 제출)**

- 문화상품기획 :
  - 나. 공모신청서, 문화상품기획서 각 1부.
  - 나. 산출물 CD 1부
  - CD 구성 내역 : 공모신청서, 문화상품기획서 등 과제 수행 시 제출한 모든 문서 및 과제 산출물 디지털 파일
- 문화콘텐츠창작 : 문화콘텐츠 창작 CD(공모신청서 포함)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통합인문학특성화사업단 기획사업팀(예산관 2층 문화학술원 행정지원실)
- 연락처 : 2260-8644

**■ 첨부서식**

- 공모 신청서(문화상품 기획서 부분) 서식
- 공모 신청서(문화콘텐츠 창작 부분) 서식

**통합인문학특성화사업단**

# 달라진 도서관, 학생결으로 ‘첨’

## 딱딱한 이미지 탈피 ... 친숙한 도서관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획 선보여

중앙도서관(관장=서원경·화학 이학 중도)이 다양한 행사들로 학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서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서관은 대학의 심장으로서 학문의 수준과 경쟁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규모가 크고 내실 있는 도서관을 가진 대학일수록 그만큼 학문적 기반이 튼튼하게 구축될 수 있다.



▲ 'DSLR 촬영테크닉'의 저자 고유석(사학3) 군이 저자와의 대화 강연 후 퀴즈를 통해 기념품을 증정하고 있다. 사진제공=윤준성

그동안 도서관은 딱딱하고 학문적인 이미지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리 친숙한 장소로 인식되지 못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도서관을 제대로 이용하려면 우선 학생과 도서관 사이의 관계가 지극적이고 긴밀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다수의 동국인들은 도서관을 책을 대출하거나 시험기간 동안 잠깐 이용하는 독서실 정도로 인식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도서관은 많은 문서들의 저장 공간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문화 재산을 이뤄내는 공간이 되는 공간이다. 현재 우리학교 중도에서도 △글벗상 수상 △저자와의 대화 △문학기행 △나눔행사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진행 중에 있어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냐'를 슬금 슬금 기대한다. 이는 다양한 행사를 열어 학생들이 도서관을 친근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계획됐다. 도서관 관계자는 "학생들이 도서관에 들러 독서를 할 뿐만 아니라 관련 체험행사에도 참여해 이 가을을 뜻깊게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동국인만의 특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롭게 바뀐 도서관 이용방법과 도서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면 이를 100% 활용할 수 없다.

### 중도, 학기 중 일요일에도 개관

중도는 이번 학기부터 국정공휴일을 제외한 일요일에도 개관한다. 이는 서울 16개 주요대학 중 네 번째로 실시되는 것이다. 일요일 개관으로 인해 자동화기를 통한 대출과 반납, 학술정보 자료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해지면서 도서관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변화분위기도 한층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말에 도서관 경비를 맡고 있는 김영수(59세) 씨는 "아직 학기 중 일요일 개관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꽤 있는 편"이라며 "일요일 개관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활발한 이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학생들도 "이제는 월요일에 숙제가 있을 때, 일요일에도 학교에 나와 공부를 하고 필요한 도서 대출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요일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평일과 같이 직원과 근로학

생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독서증진 프로그램을 활용

독서증진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독서를 생활화하고 토론능력과 교양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현재 운영 중인 독서증진프로그램은 △독서토론 △문학기행 △저자와의 대화 △영화감상토론 △중국어린이 독서교실 등이다.

독서토론과 영화감상토론은 학생들의 교양역량 강화는 물론 대학 내 성숙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안됐다. 문학기행 또한 학생들이 작품 속 배경지를 여행하면서 여러 자연환경과 그곳에 따르는 문화적 배경, 그리고 문화유산 등을 둘러보면서 문화적 소양을 기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주목된다. 학생들이 책의 저자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책에 담긴 사상과 저자의 의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의 진로와 미래에 대해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저자와의 대화도 학생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다.

'DSLR 촬영테크닉'의 저자이자 지난 달 '저자와의 대화' 강연자인 고유석(사학3)군은 "저도 학생이지만, 저자로서 학생들과 그런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 정말 뜻 깊었고, 지난 학기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까지 제 강연을 들으며 와주셔서 색다른 경험이었다"며 "방향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아 놀라웠다"고 말했다.

### 책을 많이 읽는다면 나도 글벗상

중도에서는 도서관 자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포상함으로써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글벗상(계열별로 책을 가장 많이 읽은 학생에게 상을 수여하는 제도)을 시행한다. 연간 100권 이상 대출자들에게 기념품을 지급하고 우수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서상품권(혹은 전자

사전도 지급하고 있다. 2008학년도 1학기 글벗상 수상자인 김재욱(컴공4)군은 "졸업하게 되면 도서관 이용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 아쉬운 마음에 책을 많이 읽었는데, 계열별로 수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인지 운 좋게 수상하게 됐다"며 "요즘 학우들은 대부분의 정보들을 인터넷으로 찾는 경향이 많은데 깊이 있는 정보를 습득하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책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중도, 교보문고와 업무 제휴 협약 체결

중도에서는 내달 인터넷 서점 사이트를 구축해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인의 도서구입을 지원하고 마일리지까지 쌓을 수 있는 '인터넷 구매서점 업무제휴 협약서'를 교보문고와 체결하기도 했다. 앞으로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여 구입할 경우, 학생들은 교보문고에서 제공하는 할인율을 적용받고 각종 문화행사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원 서비스로 강의교재 구매지원, 전공교재 정보지원, 수험서 자료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확보한 마일리지는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규 회원일 경우, 일정금액을 쿠폰으로 할인받을 수 있으며 년 2회 무료배송과 함께 배송품질, 서비스품질과 같은 고객 서비스도 제공받는다.

### 중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법

도서관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학기 초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용자 교육에 참가하는 것이 있다. 도서관 이용자 교육은 보통 3월 초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시행된다. 개인이 수시로 중도 홈페이지의 [도서관광장-이용자교육]란에서 신청해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중도는 지난 4월부터 △LION(Literature Online) 영미문학데이터



▲ 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홈페이지 http://dguilibrary.tistory.com

베이스 이용자교육 △CNKI-CAJ(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China Academic Journal)중국전자지널 이용자 교육 등 학생들의 적극적인 도서관 활용을 위한 이용자 교육을 실시해왔다.

이에 도서관 측 관계자는 "이용자 교육은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라며 "대학생으로서 효율적인 정보습득을 위해선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중도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 홈페이지에는 △행사 △뉴스서비스 △교육 △도서관홈페이지 속 숨은 기능 알아보기 등 학생들이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들이 있다.

그러나 일부학과와 경우, 전공서적과 강의부교재가 많이 부족해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임광설(문과대1)군은 "강의 부교재가 도서관에 없을 때가 많아 대형서점에서 개인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며 "도서구입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이용자들의 부주의로 훼손되어 낡았'이 없어진 불량도서들이 많아 책을 빌려 읽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서관측은 "도서구입 뿐만 아니라 훼손된 도서를 복원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고, 훼손도서의 경우 파손이 경미한 경우 자체적으로 보수를 한다"며 "도서 수용공간의 한계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도서구입을 늘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의 기본목적이 학문연구인 만큼 전공서적이나 강의교재 부족 문제는 도서관 측이 꾸준히 개선해야 할 사안이다.

중도가 딱딱한 모습을 벗어던지고 학생들에게 다가서려 하고 있다. 이제 일요일 도서관 개관, 문학기행 등 우리 결으로 성큼 다가온 도서관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로 학생들의 몫이다.

신중서 기자  
jongseo@dongguk.edu

## <겉따마다 운동> 중국인 유학생 김호웅 군 인터뷰 "겉따마다, 한·중 함께 해야 할 일"

동대신문은 베이징 올림픽 취재를 통해 반한감정의 심각성을 몸으로 느꼈다. 우리대학 학생 중 10%가 넘는 학생이 외국인이고 그 대다수가 중국 학생들인 점은 학내 갈등까지 염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재중 한국인회가 펼치는 '겉따마다 운동'에 동참해 중국 유학생, 나아가 외국인들에게 겸손하고 따뜻하게 마음으로 다가고자 한다. 편집자



▲ 사진은 중국인 유학생 김호웅 군(일문3)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 중국인들의 반한감정은 현재 심히 고려해야 할 문제로 부상했다. 이에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위하여 재중한국인회는 '겉따마다'란 운동을 전개했다. 겉따마다란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기 운동'으로 양국의 우호적 관계 조성하고 한국인의 이미지 쇄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양내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겉따마다' 운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대학 일어일문학과에 재학 중인 김호웅 학생을 만났다. 김호웅 학생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북경 근처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가 한국에 온 것은 3년 전으로 우리대학의 입학 을 위해서다. 평소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친구로부터 우리대학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대학에 입학을 결심했다고 한다.

3년 간 학교를 다니면서 한국학생들이 편견을 가지고 대해 상처받은 적이 있는냐는 질문에 "아직까지는 없었다. 처음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들을 때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한국인 친구들은 자기 일처럼 도와줬다"며 "내가 한국에 와서 사귀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인들의 편견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지만 막상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해보니 한국인들의 친절에 처음 걱정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중국인에 대한 선입견을 갖는 일부 한국인들의 태도에는 화가 난다. 좀 더 폭 넓게 인식하는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한국에 와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나는 자존심이 강한 편이다. 처음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자존심을 굽히고 손님을 대하는 점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지금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한국에 와서 가장 공감했던 말은 '환경이 사람을 적응시킨다'인데 나도 한국에서 오래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적응된 것 같아 지금은 힘들지 않다. 하지만 타국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은 적응되지 않는 것

## "선입견 버리는 작은 일부터 화목을 도모하자"

같은. 가끔씩 가족들을 생각할 때면 너무 외롭다"며 마치 한국인 자취생들과 같은 대답을 하기도 했다.

'겉따마다' 운동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을 때 김호웅 학생은 "겉따마다 같은 운동은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하다. 하지만 겉따마다가 한국인이 일방적으로 해야 할 운동이 아닌 같이 해나가야 할 마음가짐의 운동이었을 한다"며 "반한감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양국 간의 합의, 빈번한 교류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그는 "지금 나는 중국어와 한국어를 할 줄 알며, 일본어를 배우고 있다"며 "나의 꿈은 동아시아 3개국 즉, 한·중·일의 여행을 기획하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것이다. 한·중·일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인생의 목표는 "남부끄럽지 않게,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 말했다. (민)

jeong0424@dongguk.edu

**'겉따마다'란?**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기"란 뜻으로 중국내 저지 계획 있는 반한감정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한 운동이다. 반한감정이 우리의 편견과 우월감이 원인이었다는 반성으로 시작된 한국과 중국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운동의 목적이다.

동대신문 기획광고 · <중국 겉따마다>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기

# “你好?” “니 하오?”

우리 결의 친구에게 할 수 있는  
쉬운 사랑 표현법입니다.

동대신문사

기획연재 - 에코 캠퍼스로의 전환 ② 해외대학들의 상황

# 미국 11개 대학, 1회용품 억제 등 다양한 노력 기울여

## 캠퍼스 내 에너지 순환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적극 이용 필요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온난화, 이상기후 등이 나타나면서 세계는 친환경이라는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대학가에도 에코 캠퍼스라고 불리는 친환경 캠퍼스 구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학은 거대한 에너지 및 재화의 소비주체이며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에코 캠퍼스 구축을 위해 우리는 어떤 점에 집중해야 하는지 연재 기획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 글 쓰는 순서
1. 에코 캠퍼스는 왜 중요한가
  2. 해외 대학들의 상황
  3. 제도적 전환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 물질 순환이 진정한 생태학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에코와 관련한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에코란 생태학을 의미하는 영어의 ecology에서 출발한 용어로서, 우리 말로는 흔히 "생태"라는 정도의 접두사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에코 캠퍼스란 생태 캠퍼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생태 캠퍼스에 대한 시각은 녹색을 우선하는 일반인들의 시각과 물질 순환을 먼저 고려하는 생태학을 전공한 전문가들의 시각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발견된다.

흔히 생태 캠퍼스라고 하면 푸른 잔디밭과 울창한 수림이 우거진 캠퍼스를 연상하기 쉽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생태공원을 들 수 있는데, 생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다른 곳에서는 관찰하기 어려운 자연 생태계를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원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생태 캠퍼스 역시 생태공원과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서는 관찰하기 어려운 새와 나비, 푸른 숲이 있는 그런 캠퍼스를 의미하는 것일까? 생태 캠퍼스는 이런 의미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태학은 독일의 생물학자였던 Haeckel이 1866년 생물과 이를 둘러싼 외계의 관계에 대한 학문이라는 정의를 내리면서 출발한 학문이다. 초기 생태학은 생물학의 한 분야로서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깊이 연구되었지만, 1935년 영국의 식물학자였던 Tansley에 의해 생태계(ecosystem)의 개념이 정립되면서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생태계란 기존의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를 더 정확하게 해석하여, 생물과 환경사이를 연결하는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 구조를 의미한다.

대학 캠퍼스와 같이 인간에 의해 유지되는 생태계는 자연 생태계와는 달리 캠퍼스 외부에서 만들어진 물질과 에너지가 캠퍼스 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조달되는 생태계이다. 생태학에서는 이와 같은 생태계를 자연에 종속된 생태계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를 종속영양생태계라고 부른다. 반면 자연 상태의 숲이나 바다는 태양에너지만



▲ 윈스터 대학 지붕 위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열 집광판

을 의존할 뿐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진 영양물질이나 에너지의 도움이 없이도 자체적인 유지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생태계를 독립영양생태계라고 부른다.

### 에너지의 선 순환 구조 필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속영양생태계의 대명사는 도시이다. 도시는 그 자체적으로는 도시에서 소모되는 물질과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주변 농촌지역이나 자연지역으로부터 끊임없이 물질과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존속될 수 있다. 우리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대학 캠퍼스는 도시의 축소판이다. 따라서 도시에서 에너지와 물질 소비를 축소하고, 이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수많은 대책들은 대학 캠퍼스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생태학적인 의미에서는 이와 같이 캠퍼스 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와 물질의 소비를 최소화하고, 이를 재활용하여 순환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 캠퍼스를 에코 캠퍼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푸른 숲과 넓은 잔디밭을 가진 대학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물질 사용을 줄이고 이를 재생산, 순환시킬 수 있는 캠퍼스를 가진 대학이라면, 녹색의 의미 없이도 에코 캠퍼스라는 호칭을 부여할 수 있다.

### 에코 캠퍼스 실천 방안

최근 여러 도시들에서는 지구 온난화, 화석 에너지 및 자원의 고갈 등의 문제에 대비하여 다양한 생태도시 정책을 추진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을 대략 정리해보면 1) 에너지 절약, 2) 재생 및 대체 에너지 사용, 3) 도시의 쾌적성 증진을 위한 도시녹화 추진, 4) 물질의 순환적 이용을 고려한 재활용 정책 추진, 5) 물 부족 문제 해결과 도시기후 개선을 위한 빗물 이용 및 하수 재활용 등으로

요약할 볼 수 있다.

첫번째 에너지 절약의 수단으로는 냉난방과 조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외단열 강화 및 건축물의 이중외피 설치, 채광 효과 개선, 옥상녹화 및 벽면녹화, 지열활용 냉난방, 건축물의 집적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두번째 재생 및 대체에너지 사용은 태양광 및 태양열 이용, 풍력 이용, 음식물 쓰레기와 분뇨 등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등이 있다. 실제로 독일의 윈스터 대학에선 지붕에 효율이 높은 집광판을 설치해 그 에너지를 전력에 사용하고 있다. 또 식당 앞에 계기판을 만들어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놓았다. 세번째 녹화 방법으로는 자투리 토지를 녹화하는 직접적인 녹화 외에도 벽면 녹화, 옥상녹화, 컨테이너를 이용한 도로변 녹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녹화는 미적인 기능 외에도 도시기후 완화를 통한 쾌적성 증진, 에너지 절약 등과 같은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네번째 물질 재활용으로는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음식물 남기지 않기, 이면지 활용, 1회용품 사용 안하기, 버려시장 활성화 등의 대책이 있다. 다섯번째 물과 관련된 대책으로는 빗물 저장하여 사용하기, 지하수 함양을 위한 투수포장 확대, 일시적으로 빗물을 잡아두기 위한 옥상녹화 및 벽면 녹화, 하수를 정수하여 재활용하는 중수 이용 등의 방법이 있다.

에코 캠퍼스를 지향하기 위한 노력은 국내외 많은 대학에서 다수 관찰할 수 있다. 우리 대학의 경우에도 오래전부터 부족한 휴식 공간 문제와 녹색 공간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옥상녹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고, 금년에는 우리 대학 건축물 옥상의 대부분이 녹화될 예정이다. 이 공사가 완성되면 우리 대학은 국내는 물론 해외 대학과 비교해서도 옥상녹화에 관한 부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식당 입구에 태양열 집광판의 저장량을 알려주고 있는 계기판

### 자전거 타기 · 1회용품 지양 운동

우리 대학의 경우 남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하지만 평지에 위치한 대학들의 경우 자전거 이용이 적극 권장되고 있다. 외국에 있는 대학들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평지에 위치한 대학이 많아 자전거 타기가 거의 대부분 보편화되어 있다. 특히 베를린 공대를 비롯한 독일문화권 대학의 경우 캠퍼스 내에 대학생보다 자전거 수가 많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 자전거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이웃 일본의 경우도 유사하다. 유럽에 비해 자전거 활용이 활발하지 않았던 미국의 대학들도 최근에는 캠퍼스 내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거나 1학년 학생들에게 무상 자전거 지급 등과 같은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듀크대, 에모리대, 리콘대, 일리노이주립대 등이 대표적인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물자 전략과 재활용에 대한 대책은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거의 대부분이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쓰레기는 단순 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해야 하는 자원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보다 나무젓가락 사용이 많은 일본에서는 최근 1회용 젓가락 사용을 줄이기 위해 면 소재 젓가락 주머니를 만들어서 개인 젓가락을 지참하는 운동을 대학 캠퍼스 차원에서 진행하여, 1회용 나무젓가락의 사용량과 빈도를 줄여가고 있다. 나고야 대학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나고야 대학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학 내에서 소비되는 많은 물자들은 대학 구성원들의 인식이 전환될 경우 상당량을 절약할 수 있다. 대학은 미래의 지도자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대학에서의 이와 같은 에코 캠퍼스 정책 추진은 향후 학생들이 진출하게 되는 사회전반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에코 캠퍼스에서의 학생들의 생활과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근 하버드대, 카네기멜론대, UCLA, CALTEC 등 미국 내 11개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1회용품 사용 억제, 포스트잇 사용 억제, 음식을 남기지 않기, 과다 포장된 제품 사용하지 않기, 개인 커피잔 사용하기, 종이 티슈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 프린트하기 전에 스펠링 체크하여 종이와 잉크 절약하기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실천 방향을 홍보하고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 불교에 환경 윤리 적용

우리대학은 대한불교 조계종 종립대학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다. 산사에서 스님들께서 수행하실 때 보여주는 생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즘 우리들이 고민하는 에코 캠퍼스에서 실천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생활들을 마음에 담아 캠퍼스 생활에서 실천하고,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에코 캠퍼스의 환경윤리를 널리 사회에 보급하는 것은 우리대학의 사명이다.

앞으로 우리대학 학생들을 통해 에코 캠퍼스에서 실천하는 내용들이 많은 시민들에게 전파되고 시민들이 이에 동참하는 것을 기대해본다. 에코 캠퍼스는 학교에서 조성하는 캠퍼스가 우선이 아니라 우리들의 실천이 우선인 캠퍼스이다.

오충현  
생명과학대학 바이오학부  
환경생태공학과 교수



### 2008학년도 수계 명살순례 참가자 모집

일상생활에서의 갑갑함을 털어버리고 새 가을의 산과 바다를 느끼며, 나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산사생활의 체험 !!!  
도솔산 자락의 내원정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1. 순례일자: 2008. 10. 3(금) 08:00 ~ 10. 4(토) 1박 2일.
2. 순례사찰: 내원정사 (부산광역시 서구).
3. 참가대상 및 인원: 재학생 중 70명(선착순 접수).
4. 참가비: 일금 일만원(₩10,000)(환불 불가).
5. 신청자 접수기간: 2008. 9. 24(수) ~ 10. 1(수).  
- 선착순 접수이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6. 순례 일정

| 일자         | 시간            | 내용                | 비고     |
|------------|---------------|-------------------|--------|
| 10월 3일 (금) | 08:00 ~ 14:00 | 출발(내원정사로 이동)      | 정착원 앞  |
|            | 14:00 ~ 15:00 | 사시 공양             | 근처 식당  |
|            | 15:00 ~ 16:00 | 내원정사 도착, 방배정      |        |
|            | 16:00 ~ 17:30 | 법회, 장학증서 수여식      | 사찰측 협조 |
|            | 18:00 ~ 19:00 | 저녁 공양             |        |
| 10월 4일 (토) | 19:00 ~ 20:00 | 스님과의 대화           | 사찰측 협조 |
|            | 20:00 ~ 21:00 | 인제식 및 자기소개        |        |
|            | 22:00 ~       | 취침 또는 정근(108배)    |        |
|            | 03:00 ~ 03:30 | 기상 및 제면           |        |
|            | 03:30 ~ 05:00 | 아침예불(참선, 108배)    | 사찰측 협조 |
| 10월 4일 (토) | 05:00 ~ 06:00 | 사찰 안내             | 사찰측 협조 |
|            | 06:00 ~ 07:00 | 아침 공양             | 사찰측 협조 |
|            | 07:00 ~ 08:00 | 방정리, 휴식           |        |
|            | 08:00 ~ 09:00 | 주지스님 법어           | 사찰측 협조 |
|            | 09:00 ~ 09:30 | 회 향내원정사 출발        |        |
|            | 10:00 ~ 14:00 | 태종대 · 오륙도관광, 사시공양 |        |
|            | 14:00 ~ 19:00 | 이동(학교 도착)         |        |

7. 접수 및 문의: 학생서스팀(본관 3층 : 교내 3043).

### 학사지원본부

### 2008학년도 2학기 제1차 강의평가 실시 안내

2008학년도 2학기 제1차 강의평가 실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실시기간: 2008. 10. 1(수) 10시 ~ 10. 12(일) 24시까지
2. 평가방법: 세부문항은 별첨 '2008학년도 2학기 제1차 강의평가 설문문항' 참조.
3. 학생참여방법: 홈페이지(서울캠퍼스) - uDriMS - 로그인 - 학사정보 - 교과수업 - 강의평가관리 - 강의평가등록
4. 기타사항: 가. 교내·외 장학생 선발시 참여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나. 모든 해외연수 정책 선발시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 북미주 총동창회 초청 해외연수, 동국해외탐방, 총무여사탐방 등 다. 미참여자는 교내 장학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우수장학금(1차 또는 2차 미참여자), 강화별 수석장학(1차 또는 2차 또는 3차 미참여자) 신청 불가 리. 강의평가는 학사행정 및 강의의 질 향상을 위한 자료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미참여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강의평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학사지원본부

### 중앙도서관 계적도서 3차 판매 행사

1. 기간: 2008. 9. 29 ~ 10. 2(4일간)
2. 시간: 09:00 ~ 17:00
3. 장소: 중앙도서관 전신실
4. 종류: 사회 과학, 자연 과학 분야
5. 수량: 3,347책(북록 홈 페이지 참조)
6. 판매가: 500원 균일
7. 판매 방법: 자율 지불
8. 판매 대금: 교비 환입
9. 주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반출시 경고음이 울립니다.
10. 기타: 판매 후 남은 자료는 2009학년도 1학기 초 '도서나눔장터' 행사에서 무료 배포합니다.

### 2008학년도 사회과학대학 학부생을 위한 전공 상담회 개최

1. 대상: 사회과학대학 학부 1학년 재학생
2. 일시: 2008.10.1(수) ~ 10.2(목) 11:00~17:00
3. 장소: 사회과학관(구 동국관 M동) 3층 첨단강의실
4. 설명회 대상전공: 정치외교, 행정, 북한, 경제, 국제통상, 사회, 신문방송학과 등 7개 전공
5. 행사배경: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설명위주의 전공설명회 방식을 탈피하여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전공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6. 문의사항: 사회과학대학 학사운영실 (02-2260-3105,3104)  
\* 중국인 학생을 위한 중국어 가능 상담원 상주  
\* 상담에 참여한 학생에 한하여 식권 제공

### 사회과학대학

### 양성평등상담소 여성건강특강

"몸 속까지 아름다운 진정한 미인"

당신은 당신의 몸 속 건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성들만의 공간에서 나의 몸 속 건강에 대해서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일시: 2008년 10월 1일(수) 늦은6시  
장소: 원후관 103호  
강사: 서울여성병의원 송현진  
주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양성평등상담소

### 2008년도 예비군 보충훈련 소집공고

1. 교육 대상(대학 예비군에 편성된 자)  
가. 전반기 훈련 및 참석자와 2학기 신고자 중 훈련 대상자
2. 교육 일정 / 장소  
가. 훈련 대상자(전역1~6년차) / 노고산 종로 · 중구훈련장(219연대 2대대)

| 계  | 1 일차                  | 2 일차                  |
|----|-----------------------|-----------------------|
| 일자 | 10월 6일                | 10월 7일                |
| 대상 | 2학기 신고자 전원/<br>교직원 전원 | 전반기 불참자 전원/<br>경주 캠퍼스 |

3. 복 장: 예비군복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고무장, 허리띠)
4. 휴대품: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학생증, 면허증)
5. 유의 사항  
가. 구파발 전철역(3호선) 1번 출구로 나와서 북한산 방향으로 200m 지점에서 34번 버스 탑승(왕복 버스 요금은 학교에서 지원(승차시 신분증 제시)  
\* 08:20시 이전까지 도착하여 버스 탑승 (지연 도착자 버스지원 불가)  
나. 개인 자가용 운행가능(주차장 완비)  
\* 09:00시 이후 훈련장 도착자 입소 불가 (워킹소 통제)  
다. 예비군복 중 1가지라도 미착용 또는 불량자는 입소불가 라.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 필히 지참  
마. 개인명단 확인/상세문의 : 예비군 연대 본부

\*\*\* 훈련전일 지나친 음주는 기금적 삼가 \*\*\*

### 동국대학교 직장에비군 연대

(예비군 연대본부 : ☎ 2260 - 3047 ~ 8)

# “선진국형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도입 시급”

## 불법다운로드 근절 대책, 저작권 보호 의식 개선도 지적

법과대학 비교법문화연구소(소장=김선정·법학과)와 시민법인 한·중 지적재산권 학회(학회장=박영길·법학과)가 공동 주최한 한·중 지적재산권 학술세미나가 지난 24일 2시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시민법인 한·중 지적재산권학회 창립 기념 학술 대회로, 한국과 중국의 지적재산권분야 교수들과 실무에 있는 정책관리자가 함께 참여한 자리여서 큰 관심을 모았다. 편집자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로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세계 경제에서 지적재산권의 비중이 높아지고 국가 간 해결해야 할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인접한 지리적 요건과 한류열풍으로 교류가 많아 지적재산권 분쟁의 우려가 높다. 이를 예방하고 한국과 중국의 저작권 정책 기본방향과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검토하는 학술세미나가 개최됐다.

자에게 개인계정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만약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인계정 정지 명령을 3회 이상 불이행한 OSP는 1년 이내로 사이트의 운영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 이미 저작권보호 기간이 만료돼 공유영역에 속한 저작물이나 기증된 저작물은 저작권 프리 웹사이트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차오신밍 교수는 중국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점으로 가장 먼저 ‘저작물 규정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현재 중국의 경우 저작권 보호 기준이 모호해 사법처리 과정에서 법원의 자유재량권에 따라 저작권이 인정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 ‘경극’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경극이 오래전부터 이미 정형화 되었고 고정적 배역의 안면형상을 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에 대해서는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이상정 학장

적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남재경정법대학 후카이중 교수는 ‘중국의 집중관리단체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중국의 집중관리단체인 ‘중국 음악저작권협회’와 ‘중국 음향 저작권 집중관리협회’는 가라오케 저작권 요금사업 뿐만 아니라 방송국, 네트워크 등 저작권 사용비 사업을 담당한다. 따라서 음악과 영상물,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 사용자들은 수수료를 내야할 곳의 분류가 제대로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수수료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못해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특히 모호한 수수료의 기준 때문에 집



▲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저작권 정책과장



▲ 중남재경정법대학 차오신밍 교수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이상정 학장



▲ 중남재경정법대학 후카이중 교수

“개정될 한국의 저작권관련법 과거보다 강력한 규제 수단을 포함”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저작권 정책과장은 ‘한국의 저작권 제도와 정책’에 관해 서두를 열었다. 그는 한국의 인터넷 이용률이 아태지역 국가들 중 70.5%로 가장 높다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체계적인 디지털 저작권 보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 음원, 영상은 문화 콘텐츠 기반을 무너뜨린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는 과거보다 강력한 규제수단이 검토된 바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개정안 중 온라인 저작권 보호 정책은 네티즌이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물을 전송하면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이하 OSP)를 통해 침해물 전송

“중국의 저작권법 보호 기준이 보다 명확해져야”

두 번째로 ‘중국의 저작권 제도와 정책’에 대해 중남재경정법대학의 차오신밍 교수가 발표에 나섰다. 중남재경정법대학은 중국이 저작권 제도 초안 작업을 시작한 80년대 초부터 지적재산권 연구를 시작한 대학으로, 중국 대학 최초로 이 분야의 연구를 시작해 현재 중국 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유명하다. 차오신밍 교수는 현재 중국 저작권법 2차 개정안 연구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 저작권 제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1928년 중화민국에서 처음으로 저작권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로 폐지됐고 그 후 1991년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을 제정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차오신밍 교수는 저작권 제도의 짧은 역사 탓에 발생한 중국의 현행 저작권법

“체계적인 집중관리제도 정착위해 ‘상설감독위원회’ 필요”

이 발제를 맡았다. 집중관리제이란 저작권자가 관리 단체에 권한을 위임해, 그 관리 단체가 저작물의 이용을 단속하고 저작권 사용권 계약 사용료 징수를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상 우리나라의 집중관리제도 단체는 저작권자와 단체 사이에서 법적 기초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나뉜다. 그는 ‘신탁과 대리중개업을 나누는 기준이 확실치 않아 혼란이 생긴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더불어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가 이용형태별로 하나 또는 소수에 지나지 않아 독점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집중관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상설감독 위원회’를 통한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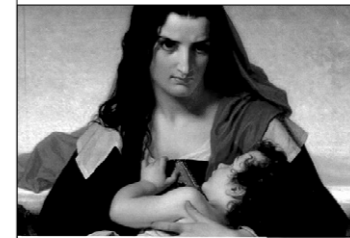
“중국은 사용자를 위해 집중관리단체의 명확한 분류가 절실”

중관리단체가 사용자에게 저작권료를 청구할 때 사용자가 명확한 법률규정이 없다는 핑계로 사용자 지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는 “한국을 비롯해 국외의 선진국들의 집중관리제도를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내 저작권 의식이 저조해 저작권 사용료 납부를 거절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대중들의 저작권 보호 의식 배양을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문화적, 역사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양국의 저작권 현안에 대해 조망할 수 있었으며, 바람직한 발전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었던 자리로 평가됐다.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 원효로 읽는 ‘주홍글자’ 김호성 교수의 비판적 책 읽기



#### 주홍 글자

The Scarlet Letter

나세니얼 호손 · 박영길 옮김

#### 주홍글자

지은이 : 나세니얼 호손

옮긴이 : 김육동

펴낸곳 : 민음사

학기 중에 책을 읽는 일은 매우 어렵다. 논문을 쓰거나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읽는 독서는 내게 책임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목적이 있는 독서는 일종의 일이고, 노동이다. 참된 책 읽기는 현실적 목적이 없을 때 가능해진다. 일로부터 해방돼 읽는 책은 어느 순간 쾌감을 준다. 그것이 책읽기의 즐거움이다. 지난 여름 방학에도 그렇게 나를 행복하게 해준 몇 권의 책과 만났다.

먼저, 너새니얼 호손(Nathaniel Hawthorne, 1804~1864)의 ‘주홍글자 The Scarlet Letter’이다. 청교도와 불교의 다름은 있어도, 종교적 이야기라는 점이 불교도인 나의 관심을 끌었다.

딤스데일 목사는 미국의 초기 청교도 역사에서 촉망받는 인재이다. 그런데 그만 한 여자와 사랑, 혹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만다. 엄연히 파계를 한 것이다. 여기서부터 나는 원효(元曉, 617~686)스님의 이야기를 겹쳐놓고 읽어

게 된다.

딤스데일 목사와 원효스님 둘 다 파계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파계 이후는 사뭇 다르다. 딤스데일 목사는 그 사실을 드러내지 못한다. 점점 심화되는 양심의 가책 속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 윌링워스의 추적을 받아서 병들어 죽어가다가 겨우 죽을 직전에 이르러 커밍아웃한다. 하지만 원효스님은 파계 즉시 환속(還俗)이라는 절차를 치른다. 스스로 “나는 이제 스님이 아니라 거사(居士, 남자 신자)이다”라고 말한다. 그 후, 세상의

먼저 속에서 민중들과 춤추며 열매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에게는 일체의 고뇌가 없다. 고백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보니까 원효스님과 겹쳐질 수 있는 인물은 정작

### 원효의 권력화된 불교에 대한 저항과 헤스터프린의 청교도 율법주의에 대한 대항은 여전히 유효한 화두

헤스터프린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딤스데일의 죄까지 떠안으면서, 묵묵히 혼자서 돌을 맞았던 여인! 청교도 사회의 율법이 부과한 대로 주홍글자 ‘A’를 가슴에 달고서 속죄의 삶을 살아간다. 그 일환으로 민중들에 대한 봉사를 통해서 그녀의 이미지를 바꾸어 간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의 가슴에 달린 주홍글자 ‘A’를 ‘Adultery(간통)’의 의미가 아니라 ‘Angel(천사)’로 해석한다. 한편으로 그녀는 청교도 사회의 율법이 지닌 허위의식에 정면으로 맞서기도 한다. 딸 필을 지켜내는 장면에서이다.

원효스님이 파계승인 그를 억압했던 당시 귀족화된 불교계의 권력에 대항하여 그들을 풍자하고, 스스로 탈권력(脫權力)의 길을 보여준 것처럼, 헤스터프린 역시 그러했다고 볼 수 있으리라.

청교도의 율법은 선과 악을 절대적으로 구분짓는 뒤 악에 대한 징계를 통해서 선을 확립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들이 알 수 없었던 것은 선에 집착하는 순간 선은 곧 악이 되고 만다는 점이다. 선의 폭력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이러한 자기모순을 범하고 있는 신라의 권력화된 불교계에 대해서, 또 청교도의 율법주의에 얽매인 초기 미국의 종교화된 권력에 대해서 원효스님과 헤스터프린은 애써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홍글자’를 읽고보니 ‘주홍글자’를 통한 작가 호손의 문제제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은 아직도 정의에 집착함으로써 또 다른 악을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 하나천강에

미국발 금융위기와 대하

우리 대학원들은 요즘 미국발 금융 위기에 관련한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면서 막연한 불안감이 휩싸이게 된다. 미국 FRB의 전 의장이었던 그린스펀 씨의 말을 빌리자면 한 세기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대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외견상 조용하기만 하다. 사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지난해 여름부터 몇몇 비우량 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 Loan)기업들의 부도로부터 시작하여 결국 금융위기로 도미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월초부터 환율이 급등하고 증권시장에는 외국투자자들의 대탈주를 예견하는 흥흥한 소문이 난무하였다. 다행히도 소문과는 달리 9월 11일 부근에 만기가 몰려있던 국채가 무사히 차환되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상황은 추석을 지나 더욱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미국 4위의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가 파산신청을 하고 3위의 투자은행인 메릴린치가 BOA에 인수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여기에 세계 제1위의 보험사라는 AIG가 전격적으로 구제금융을 신청하였으며, 패니메와 프레디맥이

라는 국영채권보증기관들에 공적자금이 투입된다는 뉴스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었다.

1997년의 암울했던 기억

그러면 미국에서 발생한 이러한 금융 위기는 우리와 관련이 없는 강 건너의 불 일까? 불행히도 필자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필자는 1997년 겨울의 암울했던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IMF외환위기로 인하여 많은 졸업생들은 원하는 직장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으며, 동양적인 예절로 매년 열리는 사은회마저 어느 사이에 조용히 사라지는 등 대학도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피해 갈 수 없었다. 이후 수년간의 졸업생들은 경제적 독립이 늦어져 나이 삼십을 훌쩍 넘기고도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일이 흔해졌다. 학생들은 모래알 같이 흩어져 더욱 개인주의화하고 대학사회에도 경제위기 직후 불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적자생존과 무한경쟁의 회오리가 몰아 닦쳤다. 우리 대학구성원들은 마땅히 거처야 할 신조류에 대한 비

판과 천착 없이 그저 대세를 따라가기에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10년여 만에 또다시 눈앞에 닥친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대학원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실행하여야 할 것인가?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대학 경쟁력 강화 절실

첫째, 별로 참신하게 들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의 실력배양론이다. 앞으로 졸업생들의 취업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불 보듯 하므로 교수들은 학생들의 교육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외국어와 전공 지식 뿐만 아니라 우리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창조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교육의 내용과 질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또는 학교 당국의 주도로 교육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우리 대학의 교육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는 평가는 드물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정부나 대학의 이사진 또는 대학장

국이 해답을 찾아줄 수도 없고, 다양한 전공에 대해 깊은 지식이 없는 외부인들이 좌지우지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다.

학문적 식민주의 개선 계기로

둘째,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대학들의 학풍이 바뀌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우리 대학구성원들은 미국에서 탄생한 신자유주의 사조가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그 치부를 드러내어 결정적인 위기에 처하는 모습을 지금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이제 외국의 사조를 무비판적이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소위 학문적 식민주의는 타파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 남이 만들어내고 제시한 idea에 무임승차만 해가지고는 더 이상 우리의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좌우논쟁을 중단하고 세계사의 도도한 조류에서 우리의 좌표를 찾고 어둠 속에서도 미래의 길을 밝히는 학문의 본원적인 기능이 복원되어야 한다. 깊어가는 이 가을에 우리 대학에도 진정한 학문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 기대해 본다.

동문칼럼

익숙한 것들과의 투쟁

성낙주  
국문 82졸업  
소설가·중계중 교사



개안(開眼)이라는 말이 있다. 한낱 미물부터 거대한 우주,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도달하는 경우를 가리킬 터인데, 그러나 이 '새로운 눈뜸'이란 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진즉에 정설로 굳어진 기존의 고정관념들이 완강하게 버티기 때문이다.

비근한 예가 몇 해 전 가수 마야의 목소리를 타고 새삼 우리 곁을 찾아서 탄생한 신자유주의 사조가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그 치부를 드러내어 결정적인 위기에 처하는 모습을 지금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이제 외국의 사조를 무비판적이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소위 학문적 식민주의는 타파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 남이 만들어내고 제시한 idea에 무임승차만 해가지고는 더 이상 우리의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좌우논쟁을 중단하고 세계사의 도도한 조류에서 우리의 좌표를 찾고 어둠 속에서도 미래의 길을 밝히는 학문의 본원적인 기능이 복원되어야 한다. 깊어가는 이 가을에 우리 대학에도 진정한 학문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 기대해 본다.

이별은 꿈에도 생각조차 임에게 아무는 가장 좋은 양탈일가. 필자에게는 '나'의 그러한 꿈이 도리어 한창 사랑에 빠진 청춘남녀의 밀어(密語)처럼만 들린다. 왜 '춘향전'을 보면 선충향과 이몽룡이 첫날밤 온갖 가정법을 동원한 '사랑가'를 부르지 않는가. 김소월은 연인 사이에서만 가능한 사랑의 유희(遊戯)를 가정법과 반어법에 은닉해 두었는지 모른다. 곧, '내가 가도 난 눈 하나 깜짝 안할 거야. 웬걸, 꽃도 한 아름 뿌려줄 테니까, 어디 한번 밟고 가봐.' 하는 장난기 섞인 고백을 의문스럽게도 경여체의 여성 목소리로 살짝 바꿔놓은 득의의 수법에 우리가 넘어간 것은 아닐까. 정리하자. '진달래꽃'은 통설과는 정반대로 환희에 찬 사랑의 노래이며, 김소월 문학의 새로운 성과로 기억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의 태어남이란 저 출렁거리는 통녘의 바다 위에 불쑥 던져진 것. 그 물결에 휩쓸려 춤추는 한 인식의 확장이나 세계관의 심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날카로운 눈길로 '익숙한 것들과의 투쟁'을 수행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개구적 상황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임이 떠나도 '말없이 고이 보내주겠다'든가, '죽어도 눈물을 아니 흘리겠다'고 짐짓 어깃장을 놓는다. 아직 '나'가 역겨지도 않고,

이별은 꿈에도 생각조차 임에게 아무는 가장 좋은 양탈일가. 필자에게는 '나'의 그러한 꿈이 도리어 한창 사랑에 빠진 청춘남녀의 밀어(密語)처럼만 들린다. 왜 '춘향전'을 보면 선충향과 이몽룡이 첫날밤 온갖 가정법을 동원한 '사랑가'를 부르지 않는가. 김소월은 연인 사이에서만 가능한 사랑의 유희(遊戯)를 가정법과 반어법에 은닉해 두었는지 모른다. 곧, '내가 가도 난 눈 하나 깜짝 안할 거야. 웬걸, 꽃도 한 아름 뿌려줄 테니까, 어디 한번 밟고 가봐.' 하는 장난기 섞인 고백을 의문스럽게도 경여체의 여성 목소리로 살짝 바꿔놓은 득의의 수법에 우리가 넘어간 것은 아닐까. 정리하자. '진달래꽃'은 통설과는 정반대로 환희에 찬 사랑의 노래이며, 김소월 문학의 새로운 성과로 기억할 수도 있는 것이다.

보리수

추석과 고향소식

해주스님  
불교대학 불교학과 교수



지난 주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비록 짧은 연휴이기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조상들에게 차례를 올리고 가족 친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고향을 다녀갔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추석이 즐거운 명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추석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가족 간의 갈등이 문제시됐다.

만나고 모일수록 노동의 다과, 노소, 상하, 빈부 격차 등에 따른 갈등이 유발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추석 등 명절 다음 달이 혼술이 두 배나 급증되었다고 한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우리는 참 고향, 고향을 찾는 즐거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얼마 전 틱낫한 스님이 40년 만에 베트남 고향에 가서 평화법문을 하면서 "조상이 어디 있는가? 내 몸이 조상이 있다. 고향이 어디 있는가, 참마음이 고향이다." 라고 하였다.

만해 한용운 스님은 1917년 설악산 오세암에서 참선하고 있었을 때, 바람이 세차게 불어 지붕에서 뿜가 툭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고 다음과 같이 오

도송을 읊었다.

사나이가 가는 곳마다 고향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대도록 나그네 시중 중에 있는가?  
(물건 떨어지는) 한소리에 삼천계가 부서지니  
눈 속의 복숭아꽃이 조각조각 나는구나.  
男兒到處是故鄉 幾人長在客愁中  
一聲喝破三千里 雪裏桃花片片飛  
(남아도처시고향 기인장재객수중 일성갈파삼천계 설리도화편편비)

고향에 있으면서 고향인줄 알지 못하고 나그네 노릇 하고 살다가 고향소식 접하고 지금까지 근심걱정으로 만들어 낸 세상이 다 사라지는 경계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진정 참마음의 고향에 돌아가 자기 마음이 바뀌고 나면 세계가 완전히 다르게 펼쳐진다. 앞으로 고향을 다녀오는 사람들은 참 고향 소식을 듣고 오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동대신문을 읽고

학내 갈등 집중 조명 필요

김정태  
사범대 학생회장



대학 새내기 시절부터 동대신문을 관심 있게 보았다. 동대신문을 보며 학내 흐름을 살펴보고, 특히 올해는 단과대 학생회장을 하며 동대신문의 열렬한 애독자가 되었으며 실제 기자들을 접할 기회도 많았다. 그리고 지난 주 동대신문에 대한 비평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순간 당황했지만 올 한 해 기억을 더듬어보며 3월부터 발행된 신문을 통독해 봤다.

우선, 학내 갈등 현안에 대한 집중 조명을 부탁하고 싶다. 학기 초부터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 학교의 총학생회 선거 개입, 입학정원관리시스템도입으로 인한 폐과 등등 수없이 많은 갈등현안들이 생산되었다. 그러나 동대신문 예전 호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일례로 총학생회 선거 개입 문제를 들 수 있다. 이 문제는 학생서비스팀이라는 학교 부서가 총학생회 선거인명부를 주지 않는 식으로 총학생회 선거를 무산시킨 일이다. 처음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자체만으로도 동아 내에서는 엄청난 이슈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밀도 있는 기사는 찾아 볼 수 없다.

등록금 문제의 기사화도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 학교 예산의 구조적인 모순을 취재의 핵심으로 잡아야 했다. 즉, 수백억 원의 이월적립금, 재단전입금 0원, 의도적인 예산 팽창기 등의 문제 접근이 필요했다. 더불어 기획연재에는 학교 측의 등록금 인상 근거만 실었을 뿐 학생들의 입장은 없었다.

사회와의 끊임없는 소통도 당부 드리고 싶다. 학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지만 사회와의 끈을 놓게 되면 스스로 고립되기 때문이다. 비근한 예로 촛불집회에 대한 기획기사 부재를 꼽을 수 있다. 동아 내에도 촛불집회 참여자가 수백 명에 달했지만 지면화된 기사는 없었다.

언론은 여론의 생산과 소비를 보장해줘야 한다. 인위적으로 여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요구를 흡수하고 사회가 진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 내야 한다. 동국대 여론의 왕성한 생산과 소비를 보장하고 동아의 진일보에 크게 기여하는 언론으로 동대신문이 거듭나길 바란다.



독자사진첩

충무로의 추억

충무로 진양상가로 들어가는 골목길. 지난 80, 90년대 우리네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속에서 가끔은 옛 것으로 돌아가 세상에 치여 상처받은 우리들의 마음이 잠시라도 쉬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상형 (공과대 II학부1)

2008 목석 대제전
9/30(화) 동국 영상 Festival
10/1(수) 동아리 연합 축제
10/2(목) 제4회 목석가요제
장소: 만해광장 특설무대
시간: 늦은 6시~
주최: 총학생회(비), 동아리연합회
교육방송국(DUBS)
후원: 중구청, 동국대학교총동창회
학생서비스팀

2008 인문주간 2008.10.6 ~ 11
사랑과 생활
인문학으로 바라보기
I. 문화체험 및 답사 '살' 그 시공(時空)을 넘어
II. 강연 및 토론 Humanism에서의 '사람'과 '살'
III. 공모 및 전시 '다문화와 살, 그리고 '가족과 공동체' 사진전시회

제3회 동국 우수 졸업 논문 지원 사업 공모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에서는 글쓰기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제3회 우수 졸업논문 지원 공모를 아래와 같이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2008년 2학기 제3기 보고서 집중상담프로그램 지원 안내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에서는 보고서 작성에 자신이 없거나 보고서 작성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지도해 주는 보고서 집중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dates and book titles. Includes '동국관' and '상록원' sections.

논단

# 방송법 시행령, 공정경쟁 배려부족 경쟁력 제고 위한다면 공공성 위한 정책적 배려 필요

필자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 즉,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의 활성화'에 대해 동감하는 편이다. 이를 통해서 대기업들의 투자가 촉진되고 나아가 방송시장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단 아쉬운 것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공공성과 공정경쟁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 '공공성'의 확보 절실

먼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시장의 보도·종합편성 채널(PP: Program Provider)에 대한 대기업의 소유 제한을 자산총액 3조에서 10조이상으로 완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행령이 원안대로 확정, 공포된다면, 자산총액 3조이상 10조미만의 대기업들은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추가적으로 소유권 제한의 완화, 민영화,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여, 대기업과 신문 자본이 방송 분야로 속속 진입할 것이다. 이런 탈규제의 추세로 융합시대가 보다 강조되어야 할 참된 '공공성'의 확보 즉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매체의 확보에 큰 차이가 벌어질 것이다. 특히 현재 지상파방송체 즉 3공영(KBS1, 2, MBC) 1민영(지역 민영방송사) 체제에서 지상파방송사 중 하나를 대기업이 소유하게 된다면, 이는 공공성의 위축과 위기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먼저 참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정책적 정비 이후에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규제완화를 논의해야 한다. 이런 뜻에서, 현 시행령 개정에서는 지상파방송사를 제외한 유료방송시장에서 보도·종합편성 PP에 대해서만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배려없는 경쟁

다음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인 SO(System Operator)의 시장점유율 제한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평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한도 전체 SO 가입구 수의 33%이하로 그리고 방송구역 77개의 33%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개정 이유를 살펴보니, '가입구 수'라는 기준 변경을 강조하고 있고, 이는 IPTV법안의 기준과 유사하게 조정해서 규제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고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가입구 수'를 강조하다보니, 개정(안)이 형식논리에 빠져들어, SO의 수평적 경영 제한이라는 법의 본래 취지 즉 '공정경쟁과 콘텐츠 다양성 확보'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첫째, 이 개정(안)은 IPTV에서처럼 '유료방송시장'이 아닌 'SO시장'의 가입구 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공정경쟁 차원에서 여전히 타 경쟁매체(예, IPTV)와의 규제 형평성에 한계를 갖는다. 이는 모범인 방송법 내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며, 차후 방송법 개정 나아가 통합법 논의 과정에서 자연히 풀릴 것이다.

## 수요독점적 지위 양산 우려

둘째, SO의 시장점유율 제한 완화가 콘텐츠 다양성 확보 즉 PP의 다양성 확보라는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는 점이다. 특히 M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Multiple SO) 또는 MSP(기업관리용 소프트웨어 임대사업, Multiple SO+PP)가 유료방송시장의 콘텐츠 수급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경쟁매체인 위성방송사와 IPTV사업자들을 위해서 는 오히려 MSO 또는 MSP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즉 SO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규제가 더 필요하다.



강재원  
신문방송학과 조교수

이들 통해서 경쟁매체들 간의 콘텐츠 수급에서 공정경쟁 환경이 형성되면, 이들 매체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PP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 낼 수 있다. 이러한 공정경쟁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이 기존 MSO사업자의 수요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이 개정(안)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

## 공정경쟁정책이 선행과제

결론적으로, 우선 소유권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가 공정경쟁정책 관점에서 정리가 되고, 이후 이를 반영한 시행령 개정으로 유료방송시장에서 소유 또는 경영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규제완화를 위한 개정에서 왜 33%인가에 대한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최근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가 SO의 수평적 소유 규제의 한도를 다채널비디오포스트그램유통(MVPD)시장의 가입구 수를 기준으로 30% 점유율로 둔 근거를 참고할 만하다. 결국 지금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 범위를 최소화하고, 향후 관련법들이 개정 또는 통합되는 과정에서 위의 규제완화 문제들이 다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설

# 점따마다 운동을 제안하며

우리 신문사가 <점따마다> 운동을 대학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천하기로 했다. 이 운동은 중국의 협한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벌이는 민간운동으로서 잘못된 여론을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인들에게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기'라는 뜻이다. 한국의 중앙일보와 중국의 인민일보가 이 운동을 공동취재 보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지만, 중국 공산당을 대표하는 신문이 자국 내에서 외국인들이 벌이는 민간 시민운동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게 이채롭다. 이 민간 시민운동의 분부장을 맡고 있는 인물은 재중국한인회 임영호 수석부회장이다. 우리 동문이자 모교가 배출한 최고위급 중국전문가 그룹에 속한다.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우리들은 혹시 이웃 중국인들에게 그동안 거만하고 불손하며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식의 이미지를 주지 않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강릉단오제 세계문화유산 등록문제도 촉발된 중국인들의 문화적 상처, 스포츠대진에 대한 국내 네티즌의 악성댓글,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 반대 시위 등 잇따른 악재가 이어지면서 우리를 바라보는 이웃 중국인들의 감정은 날로 격화되어갔다. 이런 민심은 지난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 기자단은 그들의 협한감정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어쩌서 이들이 적대국이라며 그토록 배격했던 일본보다 선린우호 교류의 상대였던 한국을 더 싫어하게 된 것일까.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자만심과 우월감이 우리를 속내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던 참이었다.

<점따마다>운동은 이런 반성의식의 실천적 출발점이다. 우리 신문사가 주관하는 <점따마다>운동은 재중국한인회만의 운동이 아닌 한국에서의 따뜻한 마음 갖기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최고 교육기관인 대학에서부터, 우리 학교에서부터 중국을 따뜻하게 대하는 운동을 실천해 보자는 것이다. 가가이는 우리 학교로 유학 와서 함께 공부하는 중국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친절이 그 시작이 될 터이다. 양국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들도 쉬운 것부터 개발하면 한중우호 분위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이런 분위기를 중국에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활동도 중요하다. 옛말에 있다. 모두가 진실하고 따뜻하게 한마음으로 동참한다면 하늘이 크게 갠들할 일이 있으리라고, 고리타분한 전근대적 담론 같지만 21세기에도 여전히 빛나는 명구이다. 지성감천(至誠感天). 중국 고전(古典)에 박혀 있는 인류 정신의 보석이다.

## 만평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     |     |           |                              |
|-----|-----|-----------|------------------------------|
| 발행인 | 오영교 | 인터넷 동대신문  | http://www.dgupress.com      |
| 편집인 | 윤재웅 | 인터넷 동국대학교 | http://www.dongguk.edu       |
| 편집장 | 정동훈 | 구독문의 :    | (02)2260-3491 · 2, 동대신문 홈페이지 |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전화 (02)2260-3491 · 2 팩스 (02)2279-1270

## 메아리

# 인터넷 토론의 성숙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일상생활이 이뤄지던 공공의 광장이었다. 아고라는 그리스어로 시장에 나오다 라는 의미를 지닌 '아고라조(Agorazo)'에서 비롯된 것이다. 후에 시장의 기능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일상생활이 이뤄지던 공간으로 변모하면서 사람이 모이는 곳, 사람들의 모임 자체를 뜻하게 됐다. 아고라는 사회의 공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졌으며 민회나 재판 등을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간이었다.

2008년 한국에서 아고라는 촛불시위로 대표되는 '다음 아고라'가 됐다. 그리고 다음 아고라는 촛불시위현장을 생중계하고 대통령을 탄핵서명 운동 등을 전개하며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공간으로써 주목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익명성을 무기로 일부 누리꾼이 촛불시위 반대 의견을 내는 이를 향한 마녀사냥과

광우병을 둘러싼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리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지난 7월 2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일명 인터넷 실명제와 확대와 포탈의 규제 의무화 등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시민단체들과 학자들은 자율적인 의견표출제한으로 인해 인터넷의 창의성 등 순기능을 제한을 우려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포털은 명예훼손 피해자가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요청할 경우 즉각 임시 삭제를 하며, 둘째, 하루 평균 방문자 30만 명 이상인 대형 인터넷 사이트에 적용되었던 실명제를 10만 명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셋째, 포털과 P2P 사업자 등에게 모니터링 의무의 부과 등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2.0'이라는 토론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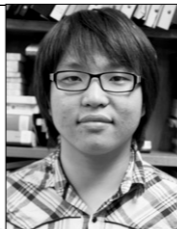
진 대통령은 홈페이지의 개설사에서 "자유롭게 대화하되,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민공간을 만들어보자"며 "개방, 공유, 참여의 웹2.0의 정신에 책임이라는 가치를 더해 민주주의 2.0의 원천으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이트 오픈이 있던 지난 18일에는 서버가 다운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2.0에서 노공이산(盧公移山)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며 올바른 토론의 방법과 노하우를 제시하거나 누리꾼에게 '미디어 랩' 등 자신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기도 했다.

▲인터넷의 커뮤니티 공간을 바라보는 두 시각이 대조적이다. 정부는 익명성 등 인터넷의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 실명제확대를 내걸었다. 인터넷의 창의성이나 개방성 등 순기능은 외면한 채 규제가 선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강국을 자부하는 우

리나라에서 책임있고 깊이있는 인터넷 토론문화를 만들려는 노력이 선행됐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 2.0의 오픈은 의미 있다. 전직 대통령이 국정운영과 여러 정치활동을 겪으며 쌓인 토론 노하우는 발전적인 인터넷 토론 문화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계에서 은퇴한 전직 대통령이 토론의 공간에서 현실정치에 참여해 월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주의 2.0의 본래취지마저 희석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현 정부는 전직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를 보며 인터넷 여론 규제에 대한 시각을 재검토해야 한다. 과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터넷 규제가 네트워크의 힘을 강화하는 IT강국의 면모를 부여하는 일인가. 반대의견도 포용하고 수용하려는 변화가 필요하다.

## 정동훈 편집장

g1226@dongguk.edu



#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기간 : 2008. 9. 1 ~ 9. 20

### 100만달기 기금

강중애(서울/교수, 10만원) 김영환(불교신도, 10만원) 박경민(경주/교수, 10만원) 조옥자(불교신도, 10만원) 박기홍(경주/교수, 5만원) 성낙진(경주/교수, 5만원) 이규준(경주/교수, 5만원) 황승일(서울/교수, 5만원) 강민구(불교신도, 3만원) 김병호(서울/직원, 3만원) 김영재(경주/교수, 3만원) 변형하(학부생, 3만원) 박상현(스님, 2만원) 이동욱(경주/교수, 2만원) 김병중(서울/직원, 1만원) 이상설(불교신도, 1만원)

### 건학100주년발전기금

(주)아프리카(기업/재단, 100만원) 조은희(불교신도, 25만원) 김계현(교직원/서울, 10만원) 남경우(10만원) 유석천(서울/교수, 10만원) 이석현(일산/직원, 10만원) 채재성(서울/교수, 10만원) 하현택(동문, 10만원) 김도현(서울/교수, 5만원) 김정호(서울/교수, 5만원) 김준식(서울/교수, 5만원) 박현주(서울/교수, 5만원) 이상조(동문, 5만원) 이원덕(서울/교수, 5만원) 이현정(불교신도, 5만원) 전병진(서울/직원, 5만원) 정수원(서울/교수, 5만원) 조성재(서울/교수, 5만원) 최창렬

(서울/교수, 5만원) 황인규(서울/교수, 5만원) 박초생(동문, 3만원) 이금자(3만원) 주성재(서울/직원, 3만원) 엄지운(동문, 2만원) 박태호(서울/직원, 1만원) 박혁성(서울/직원, 1만원) 양선희(불교신도, 1만원) 이근성(불교신도, 5천원)

### 단위기금

큰우리해물탕(기업/재단, 300만원) 김상경(서울/교수, 84만원) 이한규(경주/교수, 30만원) 김병중(경주/교수, 20만원) 배의웅(경주/교수, 20만원) 정성재(경주/교수, 20만원) 양인현(동문, 15만원) (주)캐노이(기업/재단, 10만원) 김모호(경주/교수, 10만원) 권동희(서울/교수, 10만원) 이동중(경주/교수, 10만원) 손동진(경주/교수, 5만원) 신규박(경주/교수, 5만원) 이윤호(서울/교수, 5만원) 최선우(동문, 3만원) 이종연(동문, 2만원) 정현영(동문, 2만원) 김상숙(동문, 1만원) 김문영(동문, 1만원) 김영란(동문, 1만원) 박원배(동문, 1만원) 서영주(동문, 1만원) 주미화(동문, 1만원)

### 발전기금

행정대학원(동문, 1942만6406원) 농협중앙회(기업/재단, 300만원) 안우십(경주/교수, 30만원)

정현(서울/교수, 25만원) 임태형(경주/교수, 20만원) 김현동(서울/교수, 14만원) 김수동(경주/교수, 10만원) 박정규(서울/교수, 10만원) 양성문(불교신도, 10만원) 이선민(서울/직원, 10만원) 이한규(경주/교수, 10만원) 김대선(스님, 5만원) 김호성(서울/교수, 5만원) 나두명(경주/교수, 5만원) 민창식(서울/교수, 5만원) 박건욱(경주/교수, 5만원) 박광호(서울/직원, 5만원) 이수경(경주/교수, 5만원) 이영배(경주/교수, 5만원) 이현숙(불교신도, 5만원) 임지수(동문, 5만원) 정필현(경주/교수, 5만원) 김영일(동문, 4만원) 신병수(서울/직원, 3만원) 신하연(서울/직원, 3만원) 이호연(동문, 3만원) 김용갑(서울/직원, 2만원) 김중주(서울/직원, 2만원) 박근(서울/직원, 2만원) 변승재(서울/직원, 2만원) 양문정(서울/직원, 2만원) 이진욱(동문, 2만원) 이혁준(서울/직원, 2만원) 장인준(서울/직원, 2만원) 정영환(서울/직원, 2만원) 조홍신(서울/직원, 2만원) 진혁진(서울/직원, 2만원) 박주영(서울/직원, 1만원) 김봉국(동문, 1만원) 김은수(1만원) 송순환(동문, 1만원) 송진원(동문, 1만원) 심동민(동문, 1만원) 이보형(1만원) 이상민(1만원)

### 일신불교병원발전기금

유광욱(불교신도, 20만원) 윤태희(불교신도, 20만원) 우덕은(스님, 10만원) 윤세원(불교신도, 10만

원) 이석현(일산/직원, 10만원) 이순욱(10만원) 윤상희(불교신도, 6만원) 최현미(불교신도, 6만원) 김도균(경주/교수, 5만원) 김중필(경주/교수, 5만원) 성낙진(경주/교수, 5만원) 윤영해(경주/교수, 5만원) 채우호(동문, 5만원) 김경택(3만원) 김우태(불교신도, 3만원) 윤인지(동문, 3만원) 정순욱(불교신도, 3만원) 홍관표(불교신도, 3만원) 나혜리(불교신도, 2만원) 온은수(동문, 2만원) 이철은(동문, 2만원) 장중수(동문, 5만원) 장진(동문, 5만원) 정경선(서울/직원, 5만원) 정영환(경주/직원, 5만원) 조의연(서울/교수, 5만원) 조창현(동문, 4만원) 김기진(서울/교수, 5만원) 최정훈(서울/직원, 5만원) 허진성(동문, 5만원) 윤승기(서울/교수, 5만원) 양예지(5만원) 유훈우(서울/교수, 5만원) 이광학(서울/교수, 5만원) 이상보(동문, 5만원) 이익성(서울/직원, 5만원) 이창무(동문, 5만원) 장사기(서울/교수, 5만원) 정원희(서울/교수, 5만원) 장중수(동문, 5만원) 장진(동문, 5만원) 정경선(서울/직원, 5만원) 정영환(경주/직원, 5만원) 조의연(서울/교수, 5만원) 조창현(동문, 4만원) 김기진(서울/교수, 5만원) 최정훈(서울/직원, 5만원) 허진성(동문, 5만원) 윤승기(서울/교수, 5만원) 양예지(5만원) 유훈우(서울/교수, 5만원) 이광학(서울/교수, 5만원) 이상보(동문, 5만원) 이익성(서울/직원, 5만원) 이창무(동문, 5만원) 장사기(서울/교수, 5만원) 정원희(서울/교수, 5만원) 장중수(동문, 5만원) 장진(동문, 5만원) 정경선(서울/직원, 5만원) 정영환(경주/직원, 5만원) 조의연(서울/교수, 5만원) 조창현(동문, 4만원) 김기진(서울/교수, 5만원) 최정훈(서울/직원, 5만원) 허진성(동문, 5만원) 윤승기(서울/교수, 5만원) 양예지(5만원) 유훈우(서울/교수, 5만원) 이광학(서울/교수, 5만원) 이상보(동문, 5만원) 이익성(서울/직원, 5만원) 이창무(동문, 5만원) 장사기(서울/교수, 5만원) 정원희(서울/교수, 5만원) 장중수(동문, 5만원) 장진(동문, 5만원) 정경선(서울/직원, 5만원) 정영환(경주/직원, 5만원) 조의연(서울/교수, 5만원) 조창현(동문, 4만원) 김기진(서울/교수, 5만원) 최정훈(서울/직원, 5만원) 허진성(동문, 5만원) 윤승기(서울/교수, 5만원) 양예지(5만원) 유훈우(서울/교수, 5만원) 이광학(서울/교수, 5만원) 이상보(동문, 5만원) 이익성(서울/직원, 5만원) 이창무(동문, 5만원) 장사기(서울/교수, 5만원) 정원희(서울/교수, 5만원) 장중수(동문, 5만원) 장진(동문, 5만원) 정경선(서울/직원, 5만원) 정영환(경주/직원, 5만원) 조의연(서울/교수, 5만원) 조창현(동문, 4만원) 김기진(서울/교수, 5만원) 최정훈(서울/직원, 5만원) 허진성(동문, 5만원) 윤승기(서울/교수, 5만원) 양예지(5만원) 유훈우(서울/교수, 5만원) 이광학(서울/교수, 5만원) 이상보(동문, 5만원) 이익성(서울/직원, 5만원) 이창무(동문, 5만원) 장사기(서울/교수, 5만원) 정원희(서울/교수, 5만원) 장중수(동문, 5만원) 장진(동문, 5만원) 정경선(서울/직원, 5만원) 정영환(경주/직원, 5만원) 조의연(서울/교수, 5만원) 조창현(동문, 4만원) 김기진(서울/교수, 5만원) 최정훈(서울/직원, 5만원) 허진성(동문, 5만원) 윤승기(서울/교수, 5만원) 양예지(5만원) 유훈우(서울/교수, 5만원) 이광학(서울/교수, 5만원) 이상보(동문, 5만원) 이익성(서울/직원, 5만원) 이창무(동문, 5만원) 장사기(서울/교수, 5만원) 정원희(서울/교수, 5만원) 장중수(동문, 5만원) 장진(동문, 5만원) 정경선(서울/직원, 5만원) 정영환(경주/직원, 5만원) 조의연(서울/교수, 5만원) 조창현(동문, 4만원) 김기진(서울/교수, 5만원) 최정훈(서울/직원, 5만원) 허진성(동문, 5만원) 윤승기(서울/교수, 5만원) 양예지(5만원) 유훈우(서울/교수, 5만원) 이광학(서울/교수, 5만원) 이상보(동문, 5만원) 이익성(서울/직원, 5만원) 이창무(동문, 5만원) 장사기(서울/교수, 5만원) 정원희(서울/교수, 5만원) 장중수(동문, 5만원) 장진(동문, 5만원) 정경선(서울/직원, 5만원) 정영환(경주/직원, 5만원) 조의연(서울/교수, 5만원) 조창현(동문, 4만원) 김기진(서울/교수, 5만원) 최정훈(서울/직원, 5만원) 허진성(동문, 5만원) 윤승기(서울/교수, 5만원) 양예지(5만원) 유훈우(서울/교수, 5만원) 이광학(서울/교수, 5만원) 이상보(동문, 5만원) 이익성(서울/직원, 5만원) 이창무(동문, 5만원) 장사기(서울/교수, 5만원) 정원희(서울/교수, 5만원) 장중수(동문, 5만원) 장진(동문, 5만원) 정경선(서울/직원, 5만원) 정영환(경주/직원, 5만원) 조의연(서울/교수, 5만원) 조창현(동문, 4만원) 김기진(서울/교수, 5만원) 최정훈(서울/직원, 5만원) 허진성(동문, 5만원) 윤승기(서울/교수, 5만원) 양예지(5만원) 유훈우(서울/교수, 5만원) 이광학(서울/교수, 5만원) 이상보(동문, 5만원) 이익성(서울/직원, 5만원) 이창무(동문, 5만원) 장사기(서울/교수, 5만원) 정원희(서울/교수, 5만원) 장중수(동문, 5만원) 장진(동문, 5만원) 정경선(서울/직원, 5만원) 정영환(경주/직원, 5만원) 조의연(서울/교수, 5만원) 조창현(동문, 4만원) 김기진(서울/교수, 5만원) 최정훈(서울/직원, 5만원) 허진성(동문, 5만원) 윤승기(서울/교수, 5만원) 양예지(5만원) 유훈우(서울/교수, 5만원) 이광학(서울/교수, 5만원) 이상보(동문, 5만원) 이익성(서울/직원, 5만원) 이창무(동문, 5만원) 장사기(서울/교수, 5만원) 정원희(서울/교수, 5만원) 장중수(동문, 5만원) 장진(동문, 5만원) 정경선(서울/직원, 5만원) 정영환(경주/직원, 5만원) 조의연(서울/교수, 5만원) 조창현(동문, 4만원) 김기진(서울/교수, 5만원) 최정훈(서울/직원, 5만원) 허진성(동문, 5만원) 윤승기(서울/교수, 5만원) 양예지(5만원) 유훈우(서울/교수, 5만원) 이광학(서울/교수, 5만원) 이상보(동문, 5만원) 이익성(서울/직원, 5만원) 이창무(동문, 5만원) 장사기(서울/교수, 5만원) 정원희(서울/교수, 5만원) 장중수(동문, 5만원) 장진(동문, 5만원) 정경선(서울/직원, 5만원) 정영환(경주/직원, 5만원) 조의연(서울/교수, 5만원) 조창현(동문, 4만원) 김기진(서울/교수, 5만원) 최정훈(서울/직원, 5만원) 허진성(동문, 5만원) 윤승기(서울/교수, 5만원) 양예지(5만원) 유훈우(서울/교수, 5만원) 이광학(서울/교수, 5만원) 이상보(동문, 5만원) 이익성(서울/직원, 5만원) 이창무(동문, 5만원) 장사기(서울/교수, 5만원) 정원희(서울/교수, 5만원) 장중수(동문, 5만원) 장진(동문, 5만원) 정경선(서울/직원, 5만원) 정영환(경주/직원, 5만원) 조의연(서울/교수, 5만원) 조창현(동문, 4만원) 김기진(서울/교수, 5만원) 최정훈(서울/직원, 5만원) 허진성(동문, 5만원) 윤승기(서울/교수, 5만원) 양예지(5만원) 유훈우(서울/교수, 5만원) 이광학(서울/교수, 5만원) 이상보(동문, 5만원) 이익성(서울/직원, 5만원) 이창무(동문, 5만원) 장사기(서울/교수, 5만원) 정원희(서울/교수, 5만원) 장중수(동문, 5만원) 장진(동문, 5만원) 정경선(서울/직원, 5만원) 정영환(경주/직원, 5만원) 조의연(서울/교수, 5만원) 조창현(동문, 4만원) 김기진(서울/교수, 5만원) 최정훈(서울/직원, 5만원) 허진성(동문, 5만원) 윤승기(서울/교수, 5만원) 양예지(5만원) 유훈우(서울/교수, 5만원) 이광학(서울/교수, 5만원) 이상보(동문, 5만원) 이익성(서울/직원, 5만원) 이창무(동문, 5만원) 장사기(서울/교수, 5만원) 정원희(서울/교수, 5만원) 장중수(동문, 5만원) 장진(동문, 5만원) 정경선(서울/직원, 5만원) 정영환(경주/직원, 5만원) 조의연(서울/교수, 5만원) 조창현(동문, 4만원) 김기진(서울/교수, 5만원) 최정훈(서울/직원, 5만원) 허진성(동문, 5만원) 윤승기(서울/교수, 5만원) 양예지(5만원) 유훈우(서울/교수, 5만원) 이광학(서울/교수, 5만원) 이상보(동문, 5만원) 이익성(서울/직원, 5만원) 이창무(동문, 5만원) 장사기(서울/교수, 5만원) 정원희(서울/교수, 5만원) 장중수(동문, 5만원) 장진(동문, 5만원) 정경선(서울/직원, 5만원) 정영환(경주/직원, 5만원) 조의연(서울/교수, 5만원) 조창현(동문, 4만원) 김기진(서울/교수, 5만원) 최정훈(서울/직원, 5만원) 허진성(동문, 5만원) 윤승기(서울/교수, 5만원) 양예지(5만원) 유훈우(서울/교수, 5만원) 이광학(서울/교수, 5만원) 이상보(동문, 5만원) 이익성(서울/직원, 5만원) 이창무(동문, 5만원) 장사기(서울/교수, 5만원) 정원희(서울/교수, 5만원) 장중수(동문, 5만원) 장진(동문, 5만원) 정경선(서울/직원, 5만원) 정영환(경주/직원, 5만원) 조의연(서울/교수, 5만원) 조창현(동문, 4만원) 김기진(서울/교수, 5만원) 최정훈(서울/직원, 5만원) 허진성(동문, 5만원) 윤승기(서울/교수, 5만원) 양예지(5만원) 유훈우(서울/교수, 5만원) 이광학(서울/교수, 5만원) 이상보(동문, 5만원) 이익성(서울/직원, 5만원) 이창무(동문, 5만원) 장사기(서울/교수, 5만원) 정원희(서울/교수, 5만원) 장중수(동문, 5만원) 장진(동문, 5만원) 정경선(서울/직원, 5만원) 정영환(경주/직원, 5만원) 조의연(서울/교수, 5만원) 조창현(동문, 4만원) 김기진(서울/교수, 5만원) 최정훈(서울/직원, 5만원) 허진성(동문, 5만원) 윤승기(서울/교수, 5만원) 양예지(5만원) 유훈우(서울/교수, 5만원) 이광학(서울/교수, 5만원) 이상보(동문, 5만원) 이익성(서울/직원, 5만원) 이창무(동문, 5만원) 장사기(서울/교수, 5만원) 정원희(서울/교수, 5만원) 장중수(동문, 5만원) 장진(동문, 5만원) 정경선(서울/직원, 5만원) 정영환(경주/직원, 5만원) 조의연(서울/교수, 5만원) 조창현(동문, 4만원) 김기진(서울/교수, 5만원) 최정훈(서울/직원, 5만원) 허진성(동문, 5만원) 윤승기(서울/교수, 5만원) 양예지(5만원) 유훈우(서울/교수, 5만원) 이광학(서울/교수, 5만원) 이상보(동문, 5만원) 이익성(서울/직원, 5만원) 이창무(동문, 5만원) 장사기(서울/교수, 5만원) 정원희(서울/교수, 5만원) 장중수(동문, 5만원) 장진(동문, 5만원) 정경선(서울/직원, 5만원) 정영환(경주/직원, 5만원) 조의연(서울/교수, 5만원) 조창현(동문, 4만원) 김기진(서울/교수, 5만원) 최정훈(서울/직원, 5만원) 허진성(동문, 5만원) 윤승기(서울/교수, 5만원) 양예지(5만원) 유훈우(서울/교수, 5만원) 이광학(서울/교수, 5만원) 이상보(동문, 5만원) 이익성(서울/직원, 5만원) 이창무(동문, 5만원) 장사기(서울/교수, 5만원) 정원희(서울/교수, 5만원) 장중수(동문, 5만원) 장진(동문, 5만원) 정경선(서울/직원, 5만원) 정영환(경주/직원, 5만원) 조의연(서울/교수, 5만원) 조창현(동문, 4만원) 김기진(서울/교수, 5만원) 최정훈(서울/직원, 5만원) 허진성(동문, 5만원) 윤승기(서울/교수, 5만원) 양예지(5만원) 유훈우(서울/교수, 5만원) 이광학(서울/교수, 5만원) 이상보(동문, 5만원) 이익성(서울/직원, 5만원) 이창무(동문, 5만원) 장사기(서울/교수, 5만원) 정원희(서울/교수, 5만원) 장중수(동문, 5만원) 장진(동문, 5만원) 정경선(서울/직원, 5만원) 정영환(경주/직원, 5만원) 조의연(서울/교수, 5만원) 조창현(동문, 4만원) 김기진(서울/교수, 5만원) 최정훈(서울/직원, 5만원) 허진성(동문, 5만원) 윤승기(서울/교수, 5만원) 양예지(5만원) 유훈우(서울/교수, 5만원) 이광학(서울/교수, 5만원) 이상보(동문, 5만원) 이익성(서울/직원, 5만원) 이창무(동문, 5만원) 장사기(서울/교수, 5만원) 정원희(서울/교수, 5만원) 장중수(동문, 5만원) 장진(동문, 5만원) 정경선(서울/직원, 5만원) 정영환(경주/직원, 5만원) 조의연(서울/교수, 5만원) 조창현(동문, 4만원) 김기진(서울/교수, 5만원) 최정훈(서울/직원, 5만원) 허진성(동문, 5만원) 윤승기(서울/교수, 5만원) 양예지(5만원) 유훈우(서울/교수, 5만원) 이광학(서울/교수, 5만원) 이상보(동문, 5만원) 이익성(서울/직원, 5만원) 이창무(동문, 5만원) 장사기(서울/교수, 5만원) 정원희(서울/교수, 5만원) 장중수(동문, 5만원) 장진(동문, 5만원) 정경선(서울/직원, 5만원) 정영환(경주/직원, 5만원) 조의연(서울/교수, 5만원) 조창현(동문, 4만원) 김기진(서울/교수, 5만원) 최정훈(서울/직원, 5만원) 허진성(동문, 5만원) 윤승기(서울/교수, 5만원) 양예지(5만원) 유훈우(서울/교수, 5만원) 이광학(서울/교수, 5만원) 이상보(동문, 5만원) 이익성(서울/직원, 5만원) 이창무(동문, 5만원) 장사기(서울/교수, 5만원) 정원희(서울/교수, 5만원) 장중수(동문, 5만원) 장진(동문, 5만원) 정경선(서울/직원, 5만원) 정영환(경주/직원, 5만원) 조의연(서울/교수, 5만원) 조창현(동문, 4만원) 김기진(서울/교수, 5만원) 최정훈(서울/직원, 5만원) 허진성(동문, 5만원) 윤승기(서울/교수, 5만원) 양예지(5만원) 유훈우(서울/교수, 5만원) 이광학(서울/교수, 5만원) 이상보(동문, 5만원) 이익성(서울/직원, 5만원) 이창무(동문, 5만원) 장사기(서울/교수, 5만원) 정원희(서울/교수, 5만원) 장중수(동문, 5만원) 장진(동문, 5만원) 정경선(서울/직원, 5만원) 정영환(경주/직원, 5만원) 조의연(서울/교수, 5만원) 조창현(동문, 4만원) 김기진(서울/교수, 5만원) 최정훈(서울/직원, 5만원) 허진성(동문, 5만원) 윤승기(서울/교수, 5만원) 양예지(5만원) 유훈우(서울/교수, 5만원) 이광학(서울/교수, 5만원) 이상보(동문, 5만원) 이익성(서울/직원, 5만원) 이창무(동문, 5만원) 장사기(서울/교수, 5만원) 정원희(서울/교수, 5만원) 장중수(동문, 5만원) 장진(동문, 5만원) 정경선(서울/직원, 5만원) 정영환(경주/직원, 5만원) 조의연(서울/교수, 5만원) 조창현(동문, 4만원) 김기진(서울/교수, 5만원) 최정훈(서울/직원, 5만원) 허진성(동문, 5만원) 윤승기(서울/교수, 5만원) 양예지(5만원) 유훈우(서울/교수, 5만원) 이광학(서울/교수, 5만원) 이상보(동문, 5만원) 이익성(서울/직원, 5만원) 이창무(동문, 5만원) 장사기(서울/교수, 5만원) 정원희(서울/교수, 5만원) 장중수(동문, 5만원) 장진(동문, 5만원) 정경선(서울/직원, 5만원) 정영환(경주/직원, 5만원) 조의연(서울/교수, 5만원) 조창현(동문, 4만원) 김기진

가을 수목의 아름다움과 가을의 아름다움의 미당 서정주의의 국화밭을 추억하다



우리대학 문학계의 거목 미당 서정주 선생을 기리기 위한 '미당문학제'는 매년 시행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북 고창군 미당 시문학관에서 2008 미당문학제가 열린다.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본 행사는 미당시문학관과 우리대학이 주최하고, 중앙일보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이에 미리 가 본 '2008 미당문학제'를 기획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미리 가 본 '2008 미당문학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림과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언 먼 젊음의 뒀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겨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재미삼아 퀴즈를 하나 풀어보자. 밝고 둥근 것이 높이 달려 있으니 천덕(天德)이 그 하나, 땅을 덮어 노란색을 띠니 지덕(地德)이

그 둘, 일찍 심었는데도 늦게 피어나니 군자(君子)의 덕이 그 셋, 서리를 이기고도 꽃을 피우니 지조(志操)의 덕 넷, 술잔에 꽃잎을 띄워 마시니 풍류(風流)의 덕 다섯. 과연 이 다섯 가지의 덕으로써 예찬 받은 꽃은 무엇일까.

탱글탱글하게, 소담스럽게, 보다 향기롭게 가을을 수놓는 국화가 바로 그것이다. 넉넉한 흥취를 불러일으키는 국화 밭 고창에서 열린 '미당문학제'를 통해 생생한 문학의 향기를 느껴보자.

미당백일장▶ 제2의 미당 서정주를 꿈꾸다

미당백일장에는 문학을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오는 30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1차 예심을 통과한 이들이 11월 2일 고창 미당 시문학관에서 본심을 갖게 된다. 문학을 사랑하는 마음은 단연 필수! 쟁쟁한 문호들과의 백일장에 지나친 긴장은 금물이다. 차라리 피할 수 없다면 즐겨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시인학교▶ 문인들의 소통의 장

문인 지방생인 학생들과 현역 시인이 주체가 되어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행사다. 11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미당 백일장의 예심 통과자 70명과 현역 시인 30여명 등이 참여한다.

현역 시인이 직접 강의하는 특별 강연 및 세미나, 합평회, 시인과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시를 좋아하는 이들의 자유로운 소통을 할 수 있는 이 학교에서는 시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시인을 꿈꿔 볼 수 있다.

학술대회▶ 문화공간 활성화 방안 모색

문화공간의 개발과 문화축제 창출 논의를 위해 열리는 학술대회는 11월 2일 선운산 관광호텔 대연회장에서 개최된다. '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 문화유산의 활용과 문화관 활성화, 문화 축제의 전망'을 주제로 향후 친환경적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문화관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본다. 학술적 성격의 대회라고 해서 꼭 딱딱하리라는 기대는 금물이다. 문학에 대한 관심이 충분하다면 즐거운 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유쾌한 대화의 지리가 될 수 있다.

질마재 문학마을 투어▶ 문학적 가치 탐방

질마재 문학마을 투어는 문학 현장 학습 체험 프로그램으로, 질마재 마을의 문학적 가치를 알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투어는 미당 서정주의 묘소 참배, 생가 탐방, 질마재 마을 일대 문화 유적 탐방 등으로 이뤄진다. 평소 작가들의 집필 장소는 어떻게 궁금했던 적은 없었는지, 모든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자리이다.

고창국화축제▶ 가을 속 국화밭을 만끽하라

30만평의 대지에 300억 송이의 국화가 피어있는 장관을 상상해 보라. 약 1,000여 가지의 다양한 국화들의 향연에 눈과 마음에 아스라한 감동이 전해진다. 국화누님 선발 대회부터 국화 따기 대회, 꽃마차 체험, 국화차 시음, 굴렁쇠 굴리기, 널뛰기 등 국화와 관련된 행사는 물론 축제를 물씬 느껴볼 수 있는 대회들이 준비돼 있다. 하늘, 땅, 동심, 대감등으로 하늘 열림을 연출하겠다는 고창사람들의 당찬 계획을 기대해 보아도 좋을 듯하다.

미당 서정주 선생의 시, 선선한 가을바람,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국화밭, 문학을 사랑하는 마음, 이 4가지가 혼합된 올 가을 최고의 패키지는 바로 '2008 미당문학제'이다. 문화도 따고 가을도 따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이곳 고창에서 누려보는 것은 어떨까.

김활란 기자 lan@dongguk.edu



▲ 사진은 미당 서정주의 생가 앞마당에 국화꽃이 핀 모습

영화 '신기전'의 시나리오 쓴 이만희 교수 인터뷰



홍행주의 작가? 많은 관객들과의 소통이 좋을 뿐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아이스크림? 아니, 문학의 계절인 가을에 맞게 좀 색다른 재미를 골라보자! 어김없이 문학으로 가을은 익어간다. 가을은 책을 골라 '읽는 재미'가 풍부한 계절이기도 하지만 독서와는 다른 영화를 골라 '보는 재미'도 쏠쏠한 계절이다. 시각적 재미를 있게 만드는 사람, 올 가을 누구보다도 풍성한 오락백과를 맛볼 수 있었다는 영화 '신기전'의 작가 우리대학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의 이만희 교수를 만났다.

추석 연휴 극장가 흥행 1위, 추석 스크린 점령, 모두 영화 '신기전'에 붙는 수식어들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화려한 수식어들만큼 화려할 수는 없었던 '신기전' 탄생기. "화포를 개발하기까지는 모두 수학이 아니면 과학이라 이 부분에 대한 감성적·영상적 접근이 어려웠지, 김유진 감독이 수학·과학분야의 책만 두 박스를 읽으라는데 놀라고 화도 내고 그랬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수학과 과학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게다가 고어로 된 책의 경우라면 더더욱 말이다. 머리에 쥐가 날 정도의 고생을 톡톡히 겪었지만 그래도 치유할 수 있었던 약은 오직 팬 뿐이었던 이만희 교수다.

“좌절과 실망의 미학보다는 희망과 즐거움을 주는 글을 써줬으면 좋겠어”

글을 쓰는 것이 곧 휴식이라며 항상 더 나은 글을 위해 노력하는 작가이지만, 누구나 만족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운 법. 영화 '신기전'은 민족주의를 상업화한 것이 아니냐는 냉소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글로벌한 세계 속에서 비록 아픈 역사라 하더라도 알 것은 알고 희망찬 미래를 대비해야 하지 않겠냐"며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 부분은 차기작에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는 대답을 내놓는다.

앞으로 시나리오 작가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 묻자, "가급적이면 좌절과 절망의 미학보다는 희망과 즐거움을 주는 글을 써 줬으면 좋겠어. 문학이 위로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며 희망적 메시지의 전달을 부탁한다. 즐거워서 사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도 결국 모두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웃음이 보다 유쾌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힘입은 분명하다.

“문학도들이 갖는 재미에 대한 생각부터 바꿀 필요가 있어, 재미라는 것을 꼭 화장하고 잘 보이기 위한 상술로써만 보는데 재미와 문학은 따로가 아니야” 골치 아픈 재미도, 슬픈 재미도 모두 재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드시 코미디만이 재미는 아님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이 작가의 의무라면 의무다.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기가 골치 아픈 작업이 바로 창작이지만, 삶이 다하는 날까지 가능하고 길게 글을 쓰고 싶다는 이만희 교수. 그는 스스로를 작가주의도 없이 그저 세속에만 물든 작가라며 웃어 보인다. 우울한 역사도 유쾌하게 그려 낼 줄 아는 작가 이만희의 능력을 믿어보라. 맘이 살찌는 계절이라는 가을, 올 가을 당신이 보다 넉넉한 웃음을 얻기 위해 선택할 영화로 '신기전'은 어떨까.

김활란 기자 lan@dongguk.edu

Advertisement for Dongguk University Cultural Academic Series. Features book covers and descriptions for '조선민속학' and '1910년대, 풍문의 시대를 읽다'.